

중남미지역 FDI 추이분석과 기업진출 방향

김 진 오*

I. 연구배경 및 목적

중남미지역은 유럽 식민지였다는 배경하에서 일찍부터 歐美 열강들에 의한 경제적 진출이 두드러졌던 지역이며,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의 기득권이 철저히 보호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됨과 아울러 각 산업부문에서의 규제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가 실시되면서 다양한 외국 기업들의 신규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와같은 중남미시장의 여건변화에 편승하여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남미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의 투자부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과 자원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진출방식도 80년대의 채무주식화에서 민영화와 M&A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속에 전세계 기업들의 대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투자 전략 수립은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지역별·업종별 진출분포와 최근 외국기업들의 투자전략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우리기업의 진출현황과 비교하여 향후 우리기업들의 진출방향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리고 자료 한계로 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 이베로아메리카 제2집

하여 투자진출국보다는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7개국 외국인투자 담당기관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참조함을 밝힌다.

II. 중남미 FDI 현황

1990년대에 중남미지역이 추진하고 달성한 경제개혁과 거시경제적 안정은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 일조하였고, 민영화 등과 관련한 새로운 투자기회들은 對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이후 FDI)를 크게 유인하였다. 1990년에 92억 달러에 불과했던 FDI 순유입규모는 1997년에 65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6년보다 197억 달러나 증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증가규모도 1990~94년 사이 연평균 FDI 순유입액인 182억 달러보다 많았다. IMF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전세계 FDI 순유입액이 1996년보다 18% 증가한 3,960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FDI 증가율은 1.5%에 그쳤으나 중남미지역 FDI 순유입규모는 같은 기간에 43%나 증가하고, 개도국 총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3%에서 43.9%로 높아졌다.

1. 권역별 FDI 추이

흔히 중남미지역 FDI를 분석할 때 통계상의 오류를 감안하여 국가群은 지리적 및 세계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따라 <표 2>에 속하는 중남미통합연합(LAIA) 11개국, 중미 및 카리브群, 그리고 역외금융 중심국들로 구분된다. 1997년 중남미 FDI 증가는 LAIA 11개국에 대한 FDI 증가의 결과이고, 중미, 카리브 및 역외금융 중심국 FDI는 미미했다. 즉, 중남미 FDI 순유입액 가운데 LAIA 비중이 90%를 차지하여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이 여전히 주요 투자대상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중남미 국가群별 FDI 추이, 1990~97년(단위: 백만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LAIA								
순유입	7,297	11,841	13,390	12,783	26,280	28,535	40,048	58,500
순유출	-1,289	-1,523	-1,437	-2,122	-3,951	-3,478	-2,750	-4,378
중미 및 카리브 ¹⁾								
순유입	938	1,244	1,140	1,318	1,726	1,865	2,044	2,892
순유출	5	-7	-3	-20	-24	-27	-5	-9
역외금융권								
순유입	1,010	2,558	3,306	4,023	2,457	2,606	3,357	3,807
순유출	-3,186	1,928	-1,233	-146	-92	60	-296	-2,293
총계								
순유입	9,245	15,643	17,836	18,124	30,463	33,006	45,449	65,199
순유출	-4,470	398	-2,673	-2,288	-4,067	-3,445	-3,051	-6,680

주: 1) 엘살바도르 제외.

자료: ECLAC.

1) LAIA

1997년 LAIA 국가들에 대한 FDI 순유입(585억 달러)은 1996년(40.0%)에 이어 주목할 만한 증가세(46.1%)를 기록했는데, 1996년보다 무려 184억 달러나 증가했다. 1996년부터 중남미지역에서 최대의 수혜국으로 부상한 브라질에의 FDI 순유입액은 1997년에 對중남미 총FDI의 30%인 196억 달러를 상회했다. 이에 반하여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의 1997년 FDI는 순유입규모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18.7%로, 11%에서 10.3%로 각각 감소했다. LAIA에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1997년에 증가세를 시현했지만, 칠레(10→8%)와 페루(7%→3%)에서 보듯이 비중은 대체로 감소했다. 그러나 민영화가 집중적으로 추진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비중은 7%에서 9%로, 4.8%에서 7.8%로 각각 늘어났다.

4 이베로아메리카 제2집

LAIA 국가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증가 추세로 인하여 1997년기준 누적규모는 전년보다 461억 달러 증가한 3,075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 규모는 1990년까지 누적액 보다 1,392억 달러(47%)나 증가한 것인데, 이 결과 1991~97년 사이에 중남미 FDI 누적액은 두 배로 증가했다.

<표 2> LAIA 국가별 FDI 순유입 추이, 1990~98년(단위: 백만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¹⁾
아르헨티나	1,836	2,439	4,012	3,261	3,107	4,783	5,090	6,326	2,495
볼리비아	67	93	122	124	130	393	474	601	-
브라질	989	1,103	2,061	1,292	3,072	4,859	11,200	19,652	11,900
칠레	661	822	935	1,034	2,583	2,978	4,724	5,417	2,534
콜롬비아	501	457	729	959	1,652	2,227	3,276	5,982	3,326
에콰도르	126	160	178	469	531	470	447	577	300
멕시코	2,549	4,742	4,393	4,389	10,973	9,526	9,185	12,477	5,280
파라과이	76	84	137	111	180	157	106	191	-
페루	41	-7	136	670	3,084	2,000	3,226	2,030	1,500
우루과이	-	32	58	102	155	157	137	160	-
베네수엘라	451	1,916	629	372	813	985	2,183	5,087	2,207
합 계	7,297	11,841	13,390	12,783	26,280	28,535	40,048	58,500	27,542

주: 1) 상반기 기준.

자료: ECLAC.

2) 중미 및 카리브(역외금융권 포함)

역외금융센터를 포함한 對중미 및 카리브지역 FDI는 1997년에 전년보다 27% 증가한 66억 9,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카리브 도서국가들에 대한 FDI 순유입규모는 1996년보다 56% 증가하였고, 중미지역에는 15%, 역외금융센터에는 13% 각각 증가했다. 90년대에 이 지역에 대한 FDI는 연평균 28억 9,1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대부분(11억 3,200만 달

러)이 카리브 도서국가들에 집중된 반면에 중미지역(파나마 제외)에는 연평균 5억 1,400만 달러만이 투자되었다. 중미지역에서는 코스타리카가 최대 수혜국이지만 1997년에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투자증가율이 두드러졌다. 90년대에 중미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바탕에는 정치적 안정, 무역자유화, 전기 및 통신부문 민영화, 중미통합 촉진 등이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코스타리카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과 같은 경쟁정책들이 이에 크게 기여했다. 카리브 도서국가들 중에서는 석유산업 민영화를 추진한 트리니단도바고, 보세가공수출산업(의류 및 전자) 육성과 민영화(전기, 설탕공장, 항만, 정유)에 노력중인 도미니카(공), 그리고 자메이카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진다. 90년대에 역외금융센터 혹은 tax haven으로 불리는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굴곡이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최대 수혜국인 버뮤다의 경우 1997년에 전년보다 19% 감소했지만, 파나마가 약 4배 증가함으로써 역외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파나마의 경우 역외금융부문보다 최근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통신, 전기, 상수도 등 인프라 부문의 민영화에 따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표 3> 역외금융센터 FDI 순유입 추이, 1990~97년(단위: 백만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네덜란드령 안티야스	8	33	40	11	22	10	11	17
바하마	-17	-1	-	27	23	107	88	210
버뮤다	819	2,489	3,231	2,707	1,079	1,350	2,100	1,700
케이만군도	49	5	-131	675	532	490	410	350
버진아일랜드	132	-9	27	447	447	470	510	500
파나마	19	41	139	156	354	179	238	1,030
합 계	1,010	2,558	3,306	4,028	2,457	2,606	3,357	3,807

자료: ECLAC.

6 이베로아메리카 제2집

<표 4> 중미 및 카리브지역 FDI 순유입 추이, 1990~97년(단위: 백만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코스타리카	163	178	226	247	298	396	427	446
엘살바도르	2	25	15	16	23	38	25	-
파테말라	48	91	94	143	65	75	77	84
온두라스	44	52	48	27	35	50	91	122
나카라파	-	1	15	39	40	75	97	173
앙길라	11	6	15	6	13	-	-	-
안티과바뷰다	61	55	20	15	25	31	19	28
아루바	131	185	-37	-18	-73	-6	84	196
바베이도스	11	7	14	9	13	12	22	18
벨리즈	17	14	16	9	15	21	17	12
쿠바	1	10	7	3	14	9	12	13
도니미카	13	15	21	13	23	54	18	20
그레나다	13	15	23	20	19	20	18	22
파야나	8	13	147	70	107	74	81	90
아이티	-	14	-2	-2	-3	7	4	5
자메이카	138	133	142	78	170	245	273	137
몽세라	10	8	5	5	1	-	-	-
도미니카(공)	133	145	180	225	360	404	394	414
세인트 kitt츠네비스	49	21	13	14	15	20	17	25
세인트루시아	45	58	41	34	32	30	23	45
세인트빈센트	8	9	15	31	47	31	18	42
수리남	-77	19	-54	-47	-30	-21	7	-
트리니달토바고	109	169	178	379	516	299	320	1,000
합 계	938	1,244	1,140	1,318	1,726	1,865	2,044	2,892

자료: ECLAC.

2. 對중남미 FDI 진출방식

90년대 들어 對중남미 FDI 진출방식은 투자유치국 경제정책 상의 시기적인 격차로 인하여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요 패턴은 변화하고 있다. 1993년 까지는 국영 혹은 민간기업들의 자산매입이 FDI의 주요 진출방

식이었지만, 1994~96년 사이에는 대규모 신규투자프로젝트 참여, 기존 외국기업의 구조조정 및 시설현대화 관련 투자, 그리고 새로이 민영화된 기업의 구조조정 및 현대화와 관련한 재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7년에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합류하면서 민영화를 통한 투자와 민간기업의 M&A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즉,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의 경우 민간기업 M&A를 통한 직접투자가, 브라질,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민영화를 통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1) M&A 현황

중남미지역에서 민간부문 M&A를 통한 FDI는 세계적인 추세(전세계 총FDI의 60%, UNCTAD자료)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있다. 1997년 들어 상반기까지 중남미지역에서 이루어진 M&A는 전세계 M&A의 13%로써 개발도상국 경제권에서는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ECLAC 잠정집계에 따르면 1997년에만 중남미지역에서 253억 달러 규모의 M&A가 실시되었다. 이 규모는 중남미지역 총FDI의 40%에 해당하는 것이다. 1997년 국가별 총FDI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가 97.5%를, 멕시코가 62.3%를, 칠레가 41.3%를 차지하고,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민영화를 통한 투자보다는 적지만 27.9%와 31.8%를 차지했다.

1997년에 성사된 M&A 사례(2억 5,000만 달러 이상)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은행, 제조업, 석유 및 광업부문이 대부분이 차지한다. 은행부문 M&A는 중남미 국가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영화시켰던 은행들이 부실화 된 와중에 중남미지역으로 영업망 확대와同一부문 선두주자로 부상하려는 경영전략을 천명한 British Bank, HSBC, BBV, Banco Santander, BCH, Bank of Nova Scotia(캐나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조업부문에서는 상당한 내수시장점유률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M&A 대상이 되었는데, 음료(HIT, Modelo), 담배(Cigarrera La Moderna, Cigatem),

8 이베로아메리카 제2집

화장품(Kolynos), 식품(Kibon), 건자재(Cimentos Serrana and Cisafra)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제조업부문 M&A는 금융부문 M&A와는 다소 상이한 목적에서 성사되었는데, 주로 중남미 여러 국가에 이미 진출하여 세계적인 영업망 혹은 생산망을 확보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Unilever, British American Tabacco, Philip Morris 등)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역내 다른 지역에 이미 진출한 기존사업을 철수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표 5> M&A를 통한 FDI 실적, 1997년(단위: 백만달러)

지역/국가	매도 ¹⁾	인수 ²⁾	순유입	총FDI 비중(%)
LAIA	25,251	944	24,307	41.6
아르헨티나	6,413	244	6,169	97.5
볼리비아	-	-	-	-
브라질	5,641	155	5,486	27.9
칠레	2,449	213	2,236	41.3
콜롬비아	504	0	504	8.4
에콰도르	42	0	42	7.3
멕시코	8,089	312	7,777	62.3
파라과이	4	0	4	2.1
페루	471	0	471	23.2
우루과이	-	-	-	-
베네수엘라	1,638	20	1,618	31.8
중미	58	0	58	3.1
코스타리카	0	0	0	0
엘살바도르	12	0	12	-
파테말라	14	0	14	16.7
온두라스	0	0	0	0
니카라과	32	0	32	18.5
파나마	0	0	0	0
합 계	25,309	944	24,365	40.4

주: 1) 외국인투자의 국내 민간기업 인수, 2) 국내기업의 외자기업 인수.

자료: ECLAC.

<표 6> 중남미지역 주요 M&A 사례¹⁾, 1997년(단위: 백만달러)

M&A대상기업	국가	부문	인수기업	국가	금액
Iusacell(100%)	멕시코	통신	Bell Atlantic	미국	1,712
Cigarrera La Moderna(50%)	멕시코	제조업	British American Tobacco	영국	1,443
Cifra(50%)	멕시코	상업	Wall Mart Stores, Inc.	미국	1,204
Enersis(29%)	칠레	전기	Endesa-España	스페인	1,179
CEVAL-Alimentos(100%)	브라질	식품	Bunge & Born	아르헨티나	1,200
HIT de Venezuela(50%)	베네수엘라	제조업	PANAMCO	멕/파나마	1,112
Kolynos	브라질	제조업	Colgate-Palmolive	미국	1,000
Banco Bamerindus(100%)	브라질	서비스	HSBC Holdings	영국	1,000
Kibon(100%)	브라질	제조업	Unilever	영/네덜란드	930
Cablevision(67%)	아르헨티나	통신	CEI-Citicorp 등	미/스페인	761
Banco Rio de la Plata(35%)	아르헨티나	서비스	Banco Santander	스페인	694
Satelites Mexicanos(75%)	멕시코	통신	Loral Space Comm.	미국	692
Banco Roberts(70%)	아르헨티나	서비스	HSBC Holdings	영국	668
PanamSat	멕시코	통신	Hughes Communications	미국	650
Grupo Modelo(19%)	멕시코	제조업	Anheuser-Busch	미국	605
Cointel S.A(17%)	아르헨티나	통신	CEI-Citicorp	미국	590
Banco de Credito Arg.(72%)	아르헨티나	서비스	Banco Bilbao Vizcaya	스페인	560
Unibanco(50%)	브라질	서비스	AIG	미국	500
Banco Noroeste(50%)	브라질	서비스	Banco Santander	스페인	500
Oca-Ocasa(100%)	아르헨티나	서비스	The Exxel Group	미국	450
Soldati-EG#(100%)	아르헨티나	석유	Repsol(Astra)	스페인	400
Cigatem(21%)	멕시코	제조업	Philip Morris Int'l	미국	400
Cimentos Serrana y Cisafra	브라질	제조업	Cimpo-Cimentos	포르투갈	380
Banco Provincial(40%)	베네수엘라	서비스	Banco Bilbao Vizcaya	스페인	370
Pluspetrol Energy(45%)	아르헨티나	석유	Repsol(Astra)	스페인	360
Banco Frances(30%)	아르헨티나	서비스	Banco Bilbao Vizcaya	스페인	350
VCC(40%)	아르헨티나	통신	US West Media Group	미국	340
Cointel S.A.(14%)	아르헨티나	통신	Telefónica de España	미국	340
Cerrejo Central(50%)	콜롬비아	광업	Anglo American Corp.	남아공	290
Financiera SERFIN(20%)	멕시코	서비스	HSBC Holdings	영국	270
Caemi(40%)	브라질	광업	Mitsui & Co.	일본	264
Los Pelambres(40%)	칠레	광업	Nippon Mining & Met Co/Mitsubishi materials	일본	256
Deutsche Bank Arg.(100%)	아르헨티나	서비스	Boston Bank	미국	250

주: 1) M&A 금액기준(2억 5,000만 달러 이상).

자료: ECLAC.

2) 민영화

90년대 상반기까지 중남미지역의 민영화는 FDI의 주요 방식이었다. 이러한 민영화를 통한 FDI가 최근들어 중남미 주요국의 구조조정과 규제완화속에서 국가소유로 남아 있던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다시 주요 투자방식(국내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포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의 경우 중남미지역에서는 78개 기업들이 민영화되었는데, 收入은 1996년보다 약 두배 증가한 295억 1,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전력산업의 경우 약 30개 기업이 174억 달러에 민영화되었다.

브라질은 1991~98년 7월 사이에 657억 6,400만 달러의 민영화 수입을 기록했는데, 1997년에만 전력, 통신, 도로 등에서 26건에 173억 4,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콜롬비아의 경우에도 규제완화를 통해 전력과 통신산업을 민영화했는데, 1997년에는 8건에 40억 6,1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FDI만 37억 9,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3. 중남미지역 다국적기업 진출현황

중남미 500대 기업 분석결과(América Economía紙)에 따르면, 1997년에 분석대상인 중남미 7개국에 진출해 있는 250대 다국적기업 매출액 규모(7개국 기준)가 500대 기업 총매출액(6,620억 850만 달러)의 39%인 2,584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들(208개)의 총매출액이 87.9%인 2,269억 4,9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칠레의 다국적기업들(19개)이 6.6%인 170억 2,200만 달러를, 그리고 콜롬비아·페루·베네수엘라의 다국적기업들(23개)이 5.6%인 144억 4,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부문별로는 제조업 매출이 172개 기업에 1,731억 4,300만 달러로 총매출액의 66.9%를 차지하고, 서비스부문이 55개 기업에 569억 6,400만 달러로 22.0%를, 그리고 1차산업이 23개 기업에 285억 8,000만 달러로 11.1%를 기록했다.

<표 7> 투자유치국별 250대 다국적기업 총매출액 현황, 1997년

(단위: 백만달러)

유치국가	매출액		다국적기업	
	금액	총매출 비중(%)	수	비중(%)
브라질	106,917	41.4	99	39.6
멕시코	67,155	26.0	46	18.4
아르헨티나	52,877	20.5	63	25.2
칠레	17,022	6.6	19	7.6
콜롬비아	6,639	2.6	12	4.8
베네수엘라	4,406	1.7	6	2.4
페루	3,404	1.3	5	2.0
총 계	258,418	100.0	250	100.0

자료: ECLAC.

<표 8> 투자부문별 250대 다국적기업 총매출액 현황, 1997년

(단위: 백만달러)

투자부문	매출액		다국적기업	
	금액	총매출 비중(%)	수	비중(%)
1차산업	28,580	11.1	23	9.2
석유/천연가스	23,486	9.1	16	6.4
광업	5,094	2.0	7	2.8
제조업	173,143	66.9	172	68.8
식음료담배업	49,555	19.2	57	22.8
철강산업	4,718	1.8	8	3.2
화학산업	21,963	8.5	35	14.0
자동차산업	67,657	26.2	38	15.2
전자산업	25,823	9.9	29	11.6
기타	3,427	1.3	5	2.0
서비스	56,964	22.0	55	22.0
건설업	2,526	1.0	6	2.4
상업	27,761	10.7	23	9.2
통신산업	12,148	4.7	10	4.0
에너지산업	8,940	3.5	10	4.0
기타	5,319	2.1	6	2.4
총 계	258,418	100.0	250	100.0

자료: ECLAC.

12 이베로아메리카 제2집

총매출액 가운데 선진국계 다국적기업 매출액이 95.4%인 2,465억 5,700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발도상도국계 다국적기업 매출액은 4.6%인 118억 6,1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선진국계 중에서는 미국계 기업이 48.5%인 1,252억 3,800만 달러를, 유럽연합계가 38.4%인 993억 5,000만 달러를, 그리고 일본기업이 45억 1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표 9> 투자부문별 250대 다국적기업 총매출액 현황, 1997년

(단위: 백만달러)

지역/국가	매출액		다국적기업	
	금액	총매출 비중(%)	수	비중(%)
선진국	246,557	95.4	232	92.8
미국	125,238	48.5	110	44.0
유럽연합	99,350	38.4	94	37.6
독일	26,062	10.1	24	9.6
이탈리아	16,722	6.5	14	5.6
프랑스	14,531	5.6	16	6.4
스페인	12,944	5.0	12	4.8
영국	12,327	4.8	10	4.0
네덜란드	12,162	4.7	11	4.4
기타	4,602	1.8	7	2.8
일본	4,501	1.7	7	2.8
기타 선진국	17,468	6.8	21	8.4
개도국	11,861	4.6	18	7.2
총 계	258,418	100.0	250	100.0

자료: ECLAC.

<표 10-1, 2>를 기준으로 볼 때 중남미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5~6개국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GM, Nestle, Unilever, British American Tobacco, Siemens, Hoescht, Bayer 등)과 단일국가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Carter Holt Harvey-호주,

<표 10-1> 분석대상 7개국 진출 100대 다국적기업 총매출액 현황, 1997년

(단위: 백만달러)

순위	진출국	기업명	투자부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수엘라	합계
1	미국	General Motors Corp.	자동차	5,730	7,126	774	52	833	393	15,381
2	독일	Volkswagen AG	자동차	6,531	3,423	1,348	-	-	-	11,302
3	미국	Ford Motor Company	자동차	3,759	4,871	1,866	-	-	704	11,200
4	영국/네덜란드	Royal Dutch Shell	석유/광업	6,124	-	2,205	1,22	251	-	9,825
5	이탈리아	Fiat Spa	자동차	5,824	-	3,181	-	-	183	9,188
6	미국	Coca Cola Corp.	음료	1,495	4,191	1,989	93	-	-	8,669
7	미국	Exxon Corp.	석유/광업	3,009	-	1,818	1,10	1,330	-	7,160
8	프랑스	Carrefour Supermarche	상업	5,098	-	1,737	-	-	-	6,835
9	미국	PepsiCo	음료	2,601	3,106	1,059	-	-	-	6,766
10	스페인	Telefonica de Espana	통신	-	-	3,893	1,43	-	-	6,756
11	미국	Chrysler	자동차	-	6,501	171	-	-	-	6,672
12	스위스	Nestle AG	식품	3,080	1,448	453	80	307	97	6,452
13	미국	IBM Co.	전자	2,321	2,798	580	8	-	-	5,889
14	영국/네덜란드	Unilever	식품	3,621	650	884	22	194	-	5,569
15	미국	Philip Morris Comp.	담배	1,478	-	3,446	-	-	-	4,924
16	스페인	Endesa-Espana	전기	701	-	869	281	122	-	4,507
17	미국	Wal-Mart Stores, Inc.	상업	-	4,081	400	-	-	-	4,481
18	아르헨티나	Bunge & Born	식품	3,978	-	-	-	-	-	4,311
19	영국	British American Toba.	담배	1,663	917	879	18	-	497	4,166
20	미국	Cargill Incorporated	식품	1,791	-	1,687	6	241	-	3,997
21	미국	Exel Group	잡화	-	-	3,938	-	-	-	3,938
22	미국	Texaco Incorporated	석유	3,144	-	-	-	766	-	3,930
23	독일	Daimler Benz AG	자동차	2,852	-	619	-	-	-	3,471
24	미국	General Electric	전자	-	3,048	-	-	-	93	3,141
25	뉴질랜드	Carter Holt Harvey	임산업	-	-	-	3,04	-	-	3,048
26	독일	Siemens AG	전자	1,649	573	502	-	168	130	3,022
27	미국	GTE Corporation	통신	-	-	252	-	-	2,148	2,400
28	일본	Nissan Motor Co.	자동차	-	2,153	-	-	187	-	2,397
29	미국	Xerox Corporation	전자	1,760	468	143	-	-	-	2,382
30	미국	Hewlett Packard	전자	423	1,553	205	-	-	-	2,181
31	미국	Kodak	사진	538	1,606	-	-	-	-	2,144
32	독일	Hoesch AG	화학	685	1,193	139	8	-	29	2,143
33	독일	BASF AG	화학	1,059	782	-	5	-	98	2,010
34	스웨덴	Ericsson LM	전자	1,525	420	-	-	-	-	1,945
35	네덜란드	Royal Ahold	상업	-	-	1,147	75	-	-	1,922
36	미국	AES Corp.	전기	1,803	-	-	-	-	-	1,803
37	미국	Avon Product Inc.	향수	822	355	311	-	-	70	1,558
38	이탈리아	Stet-Telecom	통신	-	-	1,175	37	-	-	1,553
39	호주	Broken Hill(BHP)	광업	-	-	-	154	-	-	1,547
40	미국	Whirlpool	전자	1,545	-	-	-	-	-	1,545
41	이탈리아	Pirelli	타이어	1,237	-	282	-	-	-	1,519
42	스위스	Glencore Holding	상업	504	-	998	-	-	-	1,502
43	미국	Anheuser-Bush	음료	-	1,492	-	-	-	-	1,492
44	독일	Bayer AG	화학	574	238	540	3	-	98	1,481
45	미국	Procter & Gamble	화학	-	1,200	-	-	-	-	1,449
46	미국	Goodyear	타이어	852	-	151	21	138	-	1,431
47	미국	Du Pont de Nemours	화학	576	510	339	-	-	-	1,425
48	스위스	Novartis	화학	774	161	481	-	-	-	1,416
49	독일	Robert Bosch GmbH	자동차부품	1,390	-	-	-	-	-	1,390
50	일본	Toyota Motor Corp.	자동차	282	-	265	-	462	230	1,337

14 이베로아메리카 제2집

<표 10-2> 분석대상 7개국 진출 100대 다국적기업 총매출액 현황, 1997년
(단위: 백만달러)

순위	진출국	기업명	투자부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네수엘라	합계
51	이탈리아	Camuzzi Gazometri SpA	석유	-	-	1,298	-	-	-	1,298
52	미국	Asarco Inc.	광업	-	1,293	-	-	-	-	1,293
53	미국	Kimberly Clark	제지/펄프	-	1,278	-	-	-	-	1,278
54	미국	Mobil Oil Corp.	광업	-	89	-	-	-	-	1,273
55	스페인	Repsol	석유	-	-	-	1,272	-	-	1,272
56	프랑스	Renault	자동차	-	-	-	1,264	-	-	1,264
57	스웨덴	Saab Scania AB	자동차	962	-	-	260	-	-	1,222
58	스페인	Iberia	교통	-	-	-	1,201	-	-	1,216
59	미국	Colgate Palmolive	화학	-	700	-	122	-	-	1,212
60	프랑스	Dreyfus & Co.	식품	739	-	-	472	-	-	1,211
61	네덜란드	SHV Makro NV	상업	1,182	-	-	-	-	-	1,182
62	프랑스	France Telecom	통신	-	-	-	1,175	-	-	1,175
63	미국	Aluminum Co. of America	금속	1,073	-	-	-	-	-	1,073
64	스위스	Holderbank Fin. Glarus	시멘트	332	554	-	-	15	-	1,063
65	이탈리아	Parmalat S.A.	식품	867	-	-	-	-	-	1,057
66	미국	Continental Bank	에너지	-	-	-	405	61	-	1,019
67	미국	Nabisco	식품	654	-	-	308	-	-	1,003
68	미국	Praxair Inc.	화학	979	-	-	-	-	-	979
69	미국	Amoco Corp.	석유	-	-	-	923	-	-	923
70	미국	Dow Chemical Company	화학	651	-	-	239	-	-	890
71	치레	Enersis	전기	-	-	-	889	-	-	889
72	프랑스	Electricite de France	전기	-	-	-	848	-	-	848
73	멕시코	Cemex S.A.	시멘트	-	-	-	-	-	-	822
74	이탈리아	Craponti & Partners	건강/화장	888	-	-	-	370	462	822
75	미국	Monsanto Company	화학	236	328	-	202	-	-	826
76	미국	Southern Peru Copper	광업	-	-	-	-	-	-	825
77	칠레	Grupo Paulmann	상업	-	-	-	815	-	-	815
78	프랑스	Alcatel Alsthom	전자	463	350	-	-	-	-	813
79	프랑스	Compagnie de Saint-Gob.	건설	807	-	-	-	-	-	807
80	미국	American Express Co.	금융서비스	-	800	-	-	-	-	800
81	프랑스	Danone	식품	334	115	-	319	-	-	768
82	네덜란드	N.V. Philips	전자	630	-	-	-	7	-	747
83	스웨덴	Electrolux AB	전자	743	-	-	-	-	-	743
84	미국	McDonald's	상업	719	-	-	-	-	-	719
85	프랑스	Peugeot	자동차	-	-	-	651	6	-	713
86	캐나다	Nova Corp.	가스	-	-	-	687	-	-	687
87	미국	Johnson & Johnson	화학	474	-	-	197	-	-	683
88	미국	Dana Equips Ltd.	자동차부품	665	-	-	-	-	-	665
89	미국	Cyprus Amax	광업	-	-	-	-	43	-	664
90	미국	BellSouth	통신	-	-	-	574	-	-	629
91	일본	Bridgestone-Firestone	타이어	639	-	-	-	-	-	629
92	영국/스페인	British Gas/Repsol	가스유통	-	-	-	628	-	-	628
93	네덜란드	Heineken N.V.	음료/맥주	-	-	-	608	-	-	608
94	스위스	La Roche & Co.	화학	408	-	-	175	-	-	605
95	미국	The Gillette Company	건강/화장	377	-	-	216	-	-	604
96	이탈리아	Smurfit Carton	제지/펄프	-	200	-	-	254	148	602
97	스위스	Andre & Cie	화학	-	-	-	601	-	-	601
98	미국	3M	상업	450	-	-	120	-	-	601
99	독일	Paulaner	식품	-	-	-	-	58	-	588
100	미국	Unisys Corporation	전자	583	-	-	-	-	-	583
합 계				98,583	60,571	57,175	20,561	7,198	5,570	250,855

Exxel Group-미국, AES Corporation-미국, BHP-호주, Camuzzi Gazometri-이탈리아, Repsol-스페인 등)이 있다. 둘째, 미국과 유럽계 다국적기업들이 주로 중남미 다수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미국의 GM, Ford, Chrysler, 유럽의 Volkswagen(독일), Fiat(이탈리아), Daimler-Benz(독일), Renault(프랑스), Saab-Scania(스웨덴), Peugeot(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셋째, 일본계 다국적기업들은 중남미 지역에 제한적인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데, 자동차부문의 Nissan과 Toyota, 전자부문의 Hitachi, Sony, Toshiba, NEC, Canon, Fujitsu 등이 대표적이다. 넷째, 중남미지역에 특히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전통적인 다국적기업들(주로 미국계 기업: Avon Products, Fiat, Colgate Palmolive, Whirlpool, Holderbank Financiere Glarus, Praxair Nestle, Aluminum Company of America, Goodyear Tire & Rubber, Gillette, Unilever, Coca-Cola, Monsanto, GE)이 있는 반면, 세계화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스페인계: Telefonica de Spain, Endesa-Spain, Repsol, Iberia, 미국계: Wal-Mart, AES Corporation)이 있다. 다섯째, 세계화에 나서고 있는 중남미계 기업들(Bunge & Born-아르헨티나, Enersis-칠레, Cemex-멕시코)이 인접국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고 있다.

중남미(파나마 제외) 지역에 진출해 있는 25대(1997년 6월 자산기준) 외국계 은행들은 브라질(42.7%), 아르헨티나(24.1%), 멕시코(15.9%)에 집중되어 있고, 출신 국가별로는 유럽계(스페인계 23.5%, 영국계 16.7%, 프랑스계 11.6%, 기타 13.3%)와 북미계(미국 29%, 캐나다 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부문과 동일하게 일본계 은행은 1.3%에 불과하다. 이들 은행들은 경영전략에 따라 4개국 이상에 지점을 둔 은행(Citibank, Banco Santander, BankBoston, BBV, Sudameris, Lloyd, ABN, BCH, Chase Manhattan, J.P. Morgan, ING Bank 등), 2개국 이하에 지점을 둔 은행(CCF, Creditanstalt, Bankverein, Bank of Montreal, BNL, Banco Comercial Portugues, Credit Lyonnais 등), 신규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경영전략으로 수개국에 지점을 둔 은행(Banco Santander,

16 이베로아메리카 제2집

BBV, Banco Central Hispano, HSBC, Bank of Nova Scotia 등), 오래전부터 활동해 온 은행(Citibank, BankBoston, Sudameris, Lloyd, ABN, Chase Manhattan, J.P. Morgan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신규진입한 은행들이 1995~97년 사이에 이루어진 중남미지역 은행 M&A(97억 9,300만 달러)의 81.5%를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Banco Santander가 28.9%를, BBV가 22.8%를, HSBC가 20.2%를, Banco Central Hispano가 5.2%를, 그리고 Bank of Nova Scotia가 4.4%를 각각 차지했다.

<표 11> 중남미진출 25대 외국은행들의 총자산 현황, 1997년 6월말 기준
(단위: 백만달러)

순위	진출국	은행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네수엘라	합계
1	미국	Citibank	7,507	4,761	6,203	2,337	918	438	
2	스페인	Banco Santander	3,545	5,004	5,291	2,131	795	1,257	
3	미국	Bank of Boston N.A.	8,664	7,816	67	991	61	-	
4	영국	HSBC	11,677	2,623	3,518	-	-	-	
5	스페인	BBV	-	4,971	4,345	-	1,388	3,422	
6	프랑스	Sudameris	7,304	699	-	279	501	-	
7	프랑스	CCF	8,645	-	-	-	-	-	
8	영국	Lloyd Bank	6,211	1,134	-	-	328	-	
9	네덜란드	ABN Amro	3,806	1,795	41	549	-	25	
10	호주	Creditanstalt	5,605	222	-	-	-	-	
11	스페인	BCH	10	-	1,710	2,556	1,196	-	
12	미국	Chase Manhattan	3,099	1,290	206	643	-	-	
13	독일	Deutsche Bank	928	3,178	-	-	-	-	
14	캐나다	Bank of Montreal	-	-	3,955	-	-	-	
15	미국	J.P. Morgan	1,597	1,212	724	-	-	205	
16	영국	ING Bank	2,113	727	75	113	-	75	
17	이탈리아	BNL	907	2,477	-	-	-	-	
18	캐나다	Bank of Nova Scotia	-	1,870	-	1,062	-	-	
19	독일	Dresner Bank	1,363	-	141	471	-	-	
20	미국	Bank of America	-	1,270	131	312	87	-	
21	포르투갈	Banco Comercial Portugues	-	-	1,710	-	-	-	
22	프랑스	SG	1,056	561	89	-	-	-	
23	일본	Bank of Tokyo-Mits.	961	266	100	79	-	-	
24	프랑스	Credit Lyonnais	-	955	-	-	-	-	
25	일본	Sumitomo	882	-	-	-	-	-	
합 계			75,879	42,832	28,305	11,522	5,285	5,421	177,891

자료: ECLAC.

III. 중남미 주요 7개국에의 FDI 분포

1. 브라질

1980년 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제7위의 FDI 유치국이던 브라질은 외채 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요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1994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안정화정책(헤일플랜)과 자유화 조치가 브라질경제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시키면서 FDI(총유입기준)는 1994년 26억달러 1997년 187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이 결과 브라질은 1995년부터 멕시코를 제치고 중남미 제1위의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했다.

<표 12> 對브라질 FDI 진출유형별 추이, 1980~1998년 9월

(단위: 백만달러)

연도	자본금	채무주식화	민영화	재투자	총유입액	유출액	순유입액
1980	1,590	39	-	411	2,040	130	1,910
1981	1,881	2	-	714	2,624	102	2,522
1982	1,336	143	-	1,556	3,035	125	2,910
1983	565	452	-	695	1,712	152	1,560
1984	487	746	-	472	1,705	107	1,598
1985	480	581	-	543	1,604	246	1,358
1986	426	206	-	449	1,081	737	344
1987	561	344	-	617	1,522	297	1,225
1988	443	2,087	-	714	3,244	274	2,970
1989	314	946	-	521	1,791	524	1,267
1990	575	283	-	273	1,131	230	901
1991	663	68	-	365	1,096	123	973
1992	1,354	220	-	175	1,749	169	1,580
1993	967	220	-	100	1,294	580	714
1994	2,368	238	-	83	2,589	618	1,971
1995	4,784	307	-	384	5,475	1,162	4,312
1996	7,026	292	2,645	447	10,496	520	9,976
1997	-	-	5,249	151	18,745	1,660	17,085
1998	-	-	5,798	-	19,540	1,571	17,969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80년대까지 주로 채무주식화를 통해 유입되던 FDI는 90년대 들어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M&A, 확대된 민영화, 그리고 이미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재투자 및 신규진출로 전환되었다. 특히 1996년부터 본격화된 민영화 과정에서 유입된 FDI는 1996~98년 9월까지 유입된 총 FDI의 28%를 차지했는데, 1단계에서는 항공, 광업, 철강화학, 석유화학, 비료부문이 민영화되고 이어서 전력, 철도, 상수도, 가스, 통신, 금융부문이 민영화 되었다. 이러한 민영화 대상 업종의 변화는 외국기업들에 의한 비교역재부문 투자를 강화시키는 기초가 되고 있다.

1) 산업별 FDI 분포

■ 브라질 산업별 FDI 분포는 브라질 경제상황과 투자유치정책이 변화하면서 90년대 상반기와 후반기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93년 사이에 제조업에 대한 FDI 유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同一부문에 진출했던 기업들 조차 투자규모를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994년부터 이와 같은 상황은 경제회복에 따른 국내시장 성장과 MERCOSUR 출범으로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소비재부문의 경우 내수시장 확대와 자유화 물결속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기존업체들이 재투자를 실시하고, 자동차 및 전자산업에 신규진출이 늘어나면서 제조업에 대한 FDI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4~98년 사이에 제조업부문 신규투자는 자동차 생산(50.6%)에 집중되었고, 다음으로 전자(19%), 화학 및 제약(9%), 식음료(6%)에 투자되었다. 이러한 신규투자 가운데 공장신설에 57.7%가 투입되고, 기존 시설확충 및 현대화에는 23.3%가 투입되었다.

2단계 민영화가 실시되면서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을 중시하는 비교역부문, 특히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1996~97년 사이에 유입된 서비스부문에 대한 FDI는 1995년까지同一부문에 유입된 FDI 누적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투자부문(금융지주회사 투자 제외)은 전력, 가스, 수도, 금융, 보험, 통신, 상업인데, 1995년 누적기준으로 서비스부문 FDI의 65%였던 이들 부문에의 FDI가 1996~97년 사이에는 94%로 높아졌다.

한편, 1차산업(농업, 광업)에 대한 FDI는 절대규모상으로는 비중이 적지만 1996~97년 사이에 칠광석 생산부문에 투자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인 성장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브라질 경제활동 부문별 FDI 추이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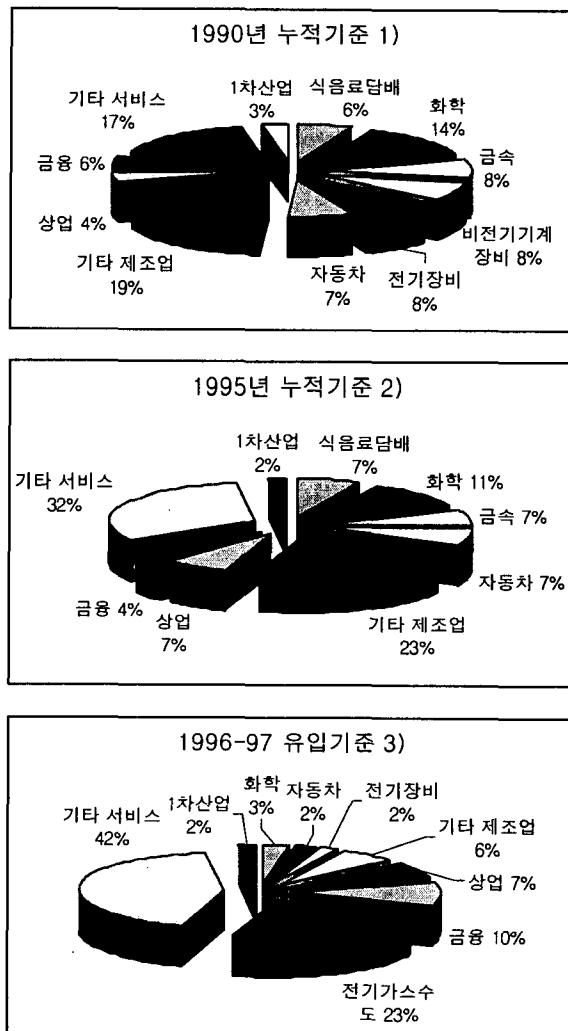
투자부문	누적액		유입 ¹⁾				누적 ²⁾	
	1995		1996		1997		1997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1차산업	688.6	1.6	110.5	1.4	456.1	3.0	1,253	1.9
농업	245.6	0.6	37.9	0.5	108.5	0.7	392.0	0.6
광업, 탐사	371.0	0.9	25.8	0.3	337.6	2.2	734.4	1.1
원유, 천연가스	72.0	0.2	46.8	0.6	10.0	0.1	128.8	0.2
제조업	23,402.4	55.0	1,740.0	22.7	2,036.4	13.3	27,178.8	41.5
식음료담배	3,047.8	7.2	435.9	5.7	322.9	2.1	3,806.6	5.8
섬유, 가죽, 의류	1,032.8	2.4	72.8	0.9	60.2	0.4	1,165.8	1.8
목재, 가구	29.0	0.1	0.0	0.0	88.1	0.6	117.1	0.2
제지, 종이제품	1,518.1	3.6	21.9	0.3	11.8	0.1	1,551.8	2.4
화학, 화학제품	4,747.7	11.2	221.6	2.9	368.2	2.4	5,337.5	8.1
석탄, 석유제품	0.0	0.0	0.0	0.0	11.0	0.1	11.0	0.0
고무, 플라스틱제품	1,317.9	3.1	30.2	0.4	139.1	0.9	1,487.2	2.3
비금속제품	816.0	1.9	194.9	2.5	207.7	1.4	1,218.6	1.9
금속	3,139.0	7.4	93.9	1.2	0.0	0.0	3,232.9	4.9
非전기기계장비	2,072.3	4.9	179.2	2.3	206.6	1.3	2,458.1	3.8
전기장비	2,299.8	5.4	160.1	2.1	354.7	2.3	2,814.6	4.3
자동차	2,851.3	6.7	286.1	3.7	222.7	1.5	3,360.1	5.1
기타 운송장비	223.0	0.5	0.0	0.0	0.0	0.0	223.0	0.4
기타 제조업	307.7	0.7	43.4	0.6	43.4	0.3	394.5	0.6
서비스	18,439.0	43.4	5,814.9	75.9	12,818.6	83.7	37,072.5	56.6
건설업	202.7	0.5	0.0	0.0	53.1	0.3	255.8	0.4
상업	2,855.8	6.7	629.3	8.2	952.4	6.2	4,437.5	6.8
교통, 창고	193.0	0.5	208.2	2.7	0.0	0.0	401.2	0.6
통신	195.1	0.5	611.2	8.0	831.3	5.4	1,637.6	2.5
전기, 가스, 수도	2.0	0.0	1,626.4	21.2	3,554.4	23.2	5,182.8	7.9
금융서비스, 보험	1,517.6	3.6	563.9	7.4	1,847.2	12.1	3,928.7	6.0
부동산	1,057.4	2.5	82.9	1.1	40.4	0.3	1,180.7	1.8
기타 서비스	12,415.4	29.2	2,093.0	27.3	5,539.8	36.6	20,048.2	30.6
총계	42,530.0	100.0	7,665.4	100.0	15,311.1	100.0	65,506.5	100.0

주: 1) 1,000만 달러 상회 FDI 대상(96년 총FDI의 73.6%, 97년 81.6%).

2) 1995년 기준 누적액에 1996~97년 유입액 합산.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그림 1> 브라질 산업부문별 FDI 분포(연평균), 1981~97년



- 주: 1) 브라질중앙은행 외자등록국 자료기준,
 2) 브라질중앙은행 외자총조사 자료기준,
 3) 채무주식화 및 재투자 제외.

2) 투자진출 국가별 분포

최근 투자부문이 변화하면서 투자진출국 분포 또한 1995년과 비교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역외금융센터를 제외할 경우 높은 투자

<표 14> 對브라질 진출국별 FDI 분포(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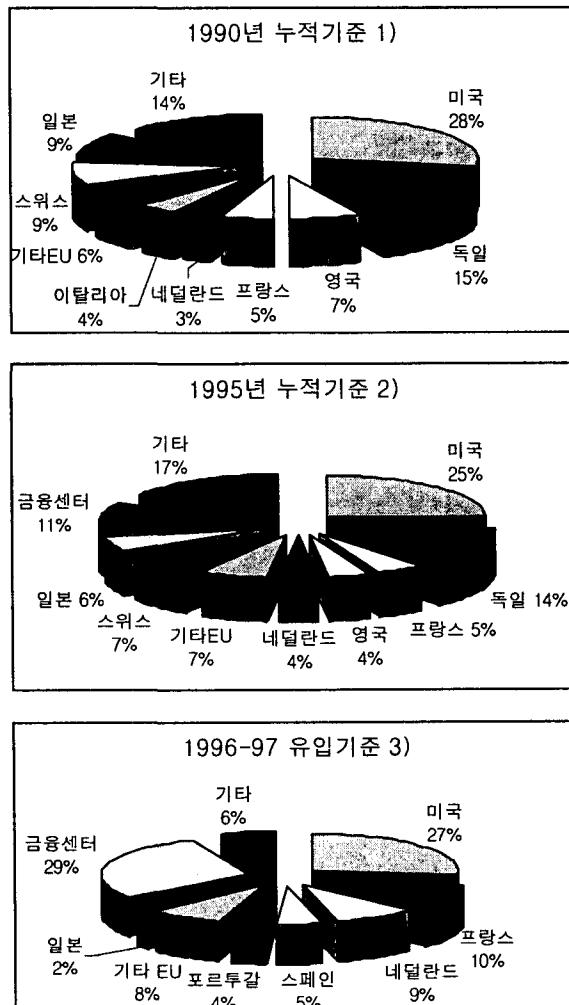
투자부문	누적액		유입1)				누적2)	
	1995		1996		1997		1997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선진국	32,480.9	76.4	5,525.0	72.1	9,719.4	63.5	47,725.3	72.9
서유럽	17,151.2	40.3	3,238.9	42.3	4,928.8	32.2	25,318.9	38.7
EU	14,336.2	33.7	3,130.1	40.8	4,847.6	31.7	2,313.9	34.1
독일	5,828.0	13.7	2,120.0	2.8	195.9	1.3	6,235.9	9.5
벨기에/룩세부르크	966.2	2.3	402.2	5.2	193.3	1.3	1,561.7	2.4
스페인	251.0	0.6	586.6	7.7	545.8	3.6	1,383.4	2.1
프랑스	2,031.5	4.8	970.0	12.7	1,235.2	8.1	4,236.7	6.5
네덜란드	1,534.5	3.6	526.8	6.9	1,487.9	9.7	3,549.2	5.4
이탈리아	1,258.6	3.0	12.3	0.2	57.4	0.4	1,328.3	2.0
포르투갈	106.6	0.3	202.7	2.6	681.0	4.4	989.7	1.5
영국	1,792.6	4.2	91.5	1.2	182.5	1.2	2,066.6	3.2
스웨덴	567.2	1.3	126.0	1.6	268.6	1.8	961.8	1.5
기타 서유럽	2,815.0	6.6	108.8	1.4	81.2	0.5	3,005.0	4.6
스위스	2,815.0	6.6	108.8	1.4	81.2	0.5	3,005.0	4.6
북미	12,671.2	29.8	2,093.9	27.3	4,448.5	29.1	19,213.6	29.3
캐나다	1,819.0	4.3	118.5	1.5	66.2	0.4	2,003.7	3.1
미국	10,852.2	25.5	1,975.4	25.8	4,382.3	28.6	17,209.9	26.3
기타 선진국	2,658.5	6.3	192.2	2.5	342.1	2.2	3,192.8	4.9
일본	2,658.5	6.3	192.2	2.5	342.1	2.2	3,192.8	4.9
개발도상국	5,939.0	14.0	1,974.6	25.8	5,324.8	34.8	13,238.4	20.2
중남미	1,267.7	3.0	111.3	1.5	243.0	1.6	1,622.0	2.5
아르헨티나	393.6	0.9	30.1	0.4	186.9	1.2	610.6	0.9
우루과이	874.1	2.1	81.2	1.1	56.1	0.4	1,011.4	1.5
역외금융센터	4,667.5	11.0	1,800.0	23.5	4,990.5	32.6	11,458.0	17.5
비하마	509.7	1.2	74.3	1.0	300.1	2.0	884.1	1.3
버뮤다	853.1	2.0	33.8	0.4	241.1	1.6	1,128.0	1.7
케이man群岛	891.7	2.1	655.7	8.6	3,382.9	22.1	4,930.5	7.5
버진아일랜드(영령)	1,735.6	4.1	361.4	4.7	162.4	1.1	2,259.4	3.4
파나마	677.4	1.6	674.8	8.8	904.0	5.9	2,256.2	3.4
아시아	3.8	0.0	63.3	0.8	91.3	0.6	158.4	0.2
한국	3.8	0.0	63.3	0.8	91.3	0.6	158.4	0.2
기타	4,110.1	9.7	165.8	2.2	266.9	1.7	4,542.8	6.9
총계	42,530.0	100.0	7,665.4	100.0	15,311.1	100.0	65,506.5	100.0

주: 1) 1,000만 달러 상회 FDI 대상(96년 총FDI의 73.6%, 97년 81.6%).

2) 1995년 기준 누적액에 1996~97년 유입액 합산.

자료: 브라질중앙은행.

<그림 2> 對브라질 진출국별 FDI 분포(연평균), 1981~97년



주: 1) 브라질중앙은행 외자등록국 자료기준,
 2) 브라질중앙은행 외자총조사 자료기준,
 3) 채무주식화 및 재투자 제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이다. 특히 유럽국가들의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1996~97년 사이에 스페인으로부터는 1995년기준 누적액 2억 5,100만 달러보다 451% 증가한 11억 3,200만 달러가, 포르투갈로부터는 828% 증가한 8억 8,400만 달러가, 프랑스로부터는 109% 증가한 22억 500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독일로부터는 1995년(누적기준)의 58억 2,800만 달러의 7%인 4억 800만 달러가, 스위스로부터는 同 28억 1,500만 달러의 6.7%인 1억 9,000만 달러가, 일본으로부터는 同 26억 5,900만 달러의 20%인 5억 3,400만 달러가 각각 유입되었다.

對브라질 최대 투자국인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FDI는 1995년기준 누적 액 108억 5,200만 달러의 59%인 63억 5,800만 달러(1996~97년)였다.

3) 브라질 진출 외국기업들의 주요 전략목표

브라질에 대한 FDI 진출방법, 부문별·진출국별 분포를 검토한 결과, 브라질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여 기존의 경영전략을 수정하고 세계적인 통합된 생산체제로의 이행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업들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시장점유를 유지 목적으로 구조조정과 재투자를 선택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투자를 선택할 경우 기업들은 다음의 전략에 따라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자동차조립부문처럼 MERCOSUR 출범에 따른 역내시장 확대를 고려하여 기존시설을 확장 및 현대화하거나 신규설비를 구축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브라질시장 점유를 확대를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공격적인 M&A와 민영화에 대한 참여이다.

2.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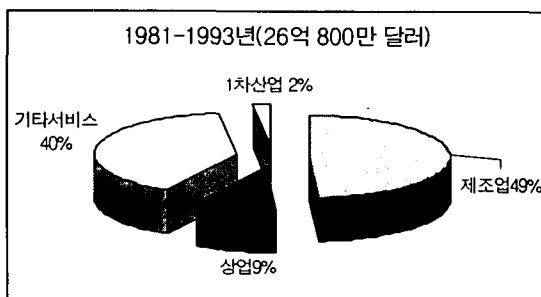
1980년대 중반으로부터 중남미지역 최대 FDI 유치국이었던 멕시코는 1996년부터 브라질에 의하여 추월당했으나, 1994~95년 경제위기 충격과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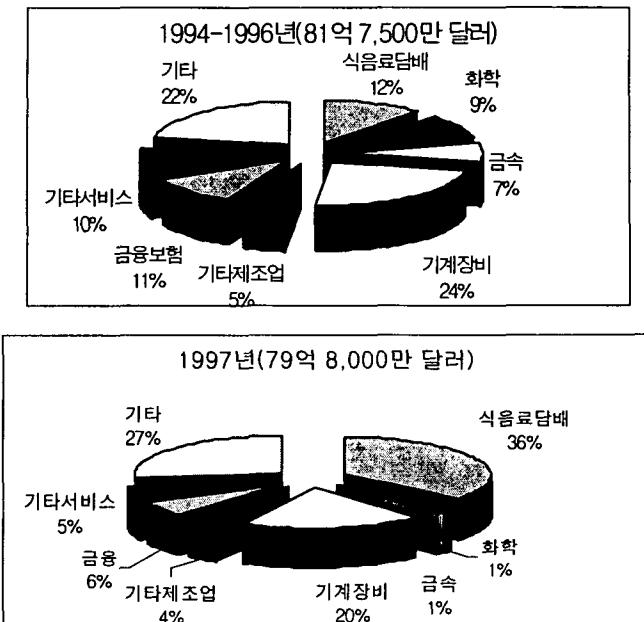
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의 주요 투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멕시코의 입지는 1988년이래 변화되고 있는 경제여건-물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 무역 및 금융시장 자유화,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민영화, NAFTA출범-에 기초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M&A를 통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1997년에 총FDI의 62.3%에 해당하는 M&A 거래가 성사되었다.

1) 산업별 FDI 분포

■ 멕시코 FDI는 제조업 중에서도 주로 수출지향산업-자동차, 전자, 전기제품-과 식음료담배업, 그리고 금융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1997년의 경우 총FDI 순유입액 가운데 62%가 제조업에 집중되었는데, 특히 식음료담배업에 대한 투자(36%)가 두드러졌다. 이를 투자는 주로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M&A(British American Tobacco→Cigarrera La Moderna, Anheuser-Busch→Grupo Modelo, Philip Morris International→Cigatam)와 멕시코시장 확대를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재투자(PepsiCo, Coca-Cola, Nestle)로 이루어졌다.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1997년에 외국기업이 금융시장을 20% 통제하고 있었다.

<그림 3> 멕시코 산업부문별 FDI 분포(연평균), 1981~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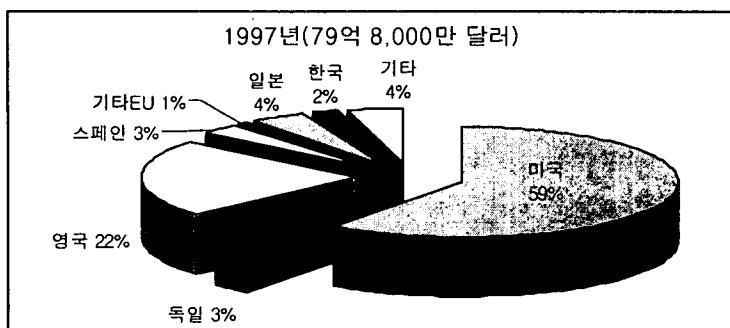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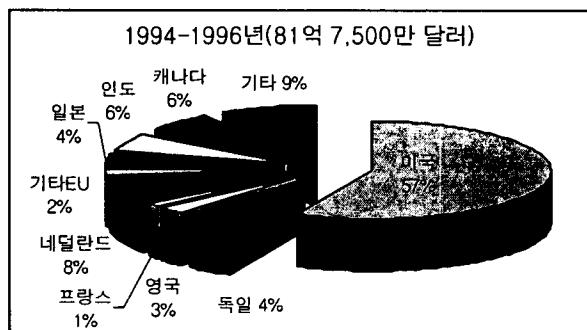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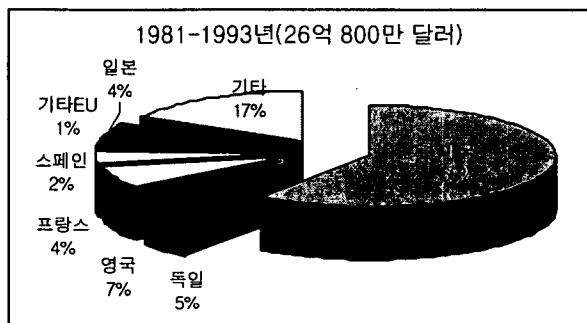
2) 투자진출 국가별 분포

미국이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캐나다, 인도, 아시아 국가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NAFTA 출범이후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최근에는 영국과 스페인의 금융기업들 진출이 두드러졌다.

3) 멕시코 진출 외국기업들의 주요 전략목표

멕시코에 대한 FDI 방식, 부문별·진출국별 분포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주요한 전략목표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북미시장 생산통합을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효율성 제고로서 주로 자동차, 정보처리, 전자, 의류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용절감과 NAFTA시장 수출기회 확대

<그림 4> 對멕시코 진출국별 FDI 분포(연평균), 1981~97년



가 멕시코로 생산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둘째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내수시장 진출로서 주로 금융, 통신, 식음료담배와 같은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기업들의 내수시장 접근과 시장확대는 M&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7-1> 매출액기준 멕시코 50대 외국기업 현황, 1997년

(단위: 백만달러, %)

기업명	부문	매출액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진출국	수출액
General Motors of Mexico	자동차	7,126	General Motors Corp.	100	미국	5,548
Chrysler of Mexico	자동차	6,501	Chrysler	100	미국	4,862
Ford Motor Co.	자동차	4,871	Ford Motor Company	100	미국	3,050
Cifra	상업	4,081	Wal-Mart Stores, Inc.	50	미국	-
Volkswagen of Mexico	자동차	3,423	Volkswagen AG	100	독일	2,600
Fomento Económico Mexicano	음료	3,049	Coca-Cola Corp.	50	미국	145
IBM of Mexico	정보처리	2,798	IBM Corporation	100	미국	2,271
Sabritas S.A.I)	식품	2,601	PepsiCo	100	미국	-
Nissan Mexicana S.A.	자동차	2,153	Nissan Motor Co.	100	일본	1,257
General Electric of Mexico	전자	2,117	General Electric	100	미국	-
Grupo Kodak	사진	1,606	Kodak	100	미국	496
Hewlett-Packard of Mexico	전자	1,553	Hewlett Packard-Delaware	100	미국	419
Grupo Modelo	음료	1,492	Anheuser-Busch	37	미국	-
Hylsamex	철강	1,456	Alfa S.A.	82	미국	-
Cia Nestle	식품	1,448	Nestle AG	100	스위스	153
Femsa-Cerveza	음료	1,297	John Labatt Limited	30	캐나다	-
Grupo Mexicano	광업	1,293	Asarco Inc.	26	미국	-
Kimberly-Clark of Mexico	제지/펄프	1,278	Kimberly-Clark	47	미국	71
Procter & Gamble of Mexico(1)	화학	1,200	Procter & Gamble	100	미국	-
Grupo Celanese	석유화학	1,193	Hoechst AG	51	독일	484
Coca-Cola/Femsa	음료	1,142	Coca-Cola Corp.	30	미국	-
Nadro S.A.	상업	996	Mckesson Corporation	33	미국	-
Mabe S.A.	전자	931	General Electric	48	미국	232
Cigarrera La Moderna	담배	917	British American Tobacco	100	영국	145
Transportacion Maritima Mex.	교통	912	Canadian Pacific Ships	50	영국	375
American Express Co.(1)	금융	800	American Express Co.	100	미국	-
Grupo BASF in Mexico	화학	782	BASF AG	100	독일	-
Colgate-Palmolive S.A.I)	화학	700	Colgate-Palmolive Co.	100	미국	-
Unilever of Mexico(1)	식품	650	Unilever	100	영/네덜	-

28 이베로아메리카 제2집

<표 17-2> 매출액 기준 멕시코 50대 외국기업 현황, 1997년

(단위: 백만달러, %)

기업명	부문	매출액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진출국	수출액
Siemens	전자	573	Siemens AG	100	독일	28
Cementos Apasco SA de CV	시멘트	554	Holderbank Financiere	100	스위스	46
Dupont S.A.	화학	510	Du Pont de Nemours	100	미국	221
Grupo Embotellador de Mex.	음료	505	PepsiCo.	47	미국	-
Xerox Mexicana	전자	468	Xerox Corporation	100	미국	276
Teleindustria Mex., Ericsson ¹⁾	전자	420	Ericsson	94	스웨덴	91
Sears Roebuck	상업	414	Sears Roebuck and Co.	100	미국	-
Gruppo Situr	호텔	413	-	-	미국	-
Lear Corporation Mexico ¹⁾	자동차부품	390	Lear Corporation	99	미국	-
Motorola de Mexico	전자	361	Motorola	100	미국	386
Avon Cosmetics S.A. ¹⁾	화장품	355	Avon Products Inc.	99	미국	-
Alcatel-Indetell ¹⁾	전자	350	Alcatel Alsthom	-	프랑스	-
Mexinox and Subsidiaries	철강	332	Grupo Mexinox S.A.	66	독일/스페인	198
Sistema Argos	음료	318	Coca-Cola	-	미국	-
John Deere	농업기계	283	John Deere	100	미국	-
Dina Camiones	자동차	277	Coaches Industry Int'l	100	미국	-
Polioles	석유화학	266	Alpek S.A.	50	독일	-
Grupo Smurfit Mexico ¹⁾	제지/펄프	200	Smurfit Carton	100	아일랜드	-
Nemak	자동차부품	195	-	40	미국	-
Pennwalt Chemicals & Subs.	화학	188	Delaware Chemicals	40	미국	-
Cia Industrial de Parras	섬유	182	-	-	미국	-

주: 1) 1996년기준.

자료: ECLAC.

<표 18> 외국기업에 의한 멕시코 기업 M&A 사례, 1997년

(단위: 백만달러)

M&A대상기업	지분(%)	부문	인수기업	진출국	금액
Iusacell	100	통신	Bell Atlantic	미국	1,712
Cigarrera La Moderna	50	담배	British American Tobacco	영국	1,443
Cifra	100	상업	Wall Mart Stores, Inc.	미국	1,204
Satellites Mexicanos	75	통신	Loral Space Communications	미국	692
PanamSat	-	통신	Hughes Communications	미국	650
Grupo Modelo	37	음료	Anheuser-Busch	미국	605
Cigatem	21	담배	Philip Morris International	미국	400
Grupo Serfin	20	은행	HSBC	영국	270
Loreto	100	제지/펄프	Procter & Gamble	미국	170
Grupo Banorte	49	보험	Assicurazioni Generali	이탈리아	159
Vitro	100	광업	Unimin Corp.	미국	131
Grupo MVS	20	통신	Hicks, Muse, Tate & Furst	미국	120
Metalsa	40	자동차	Tower	미국	100
Femsa-Cerveza	8	음료	John Labatt Ltd.	캐나다	100
Seguros Serfin	49	보험	Lincoln National	미국	85
John Deere	100	기계	Industrial John Deere	미국	62
Corporacion Mobilcom	77	통신	Nextel Communications	미국	54
5,000만 달리 이하 M&A					132
합 계					8,089

자료: ECLAC.

3. 아르헨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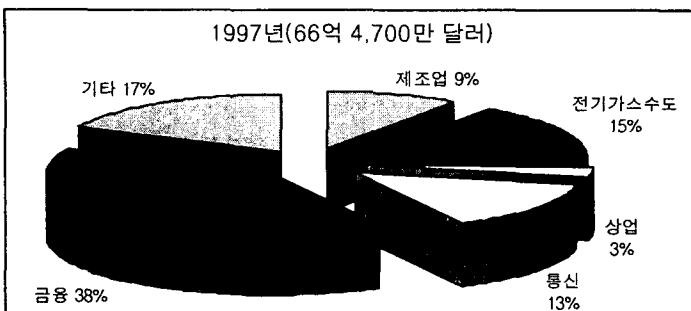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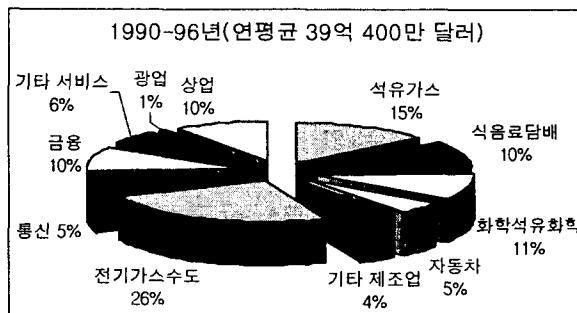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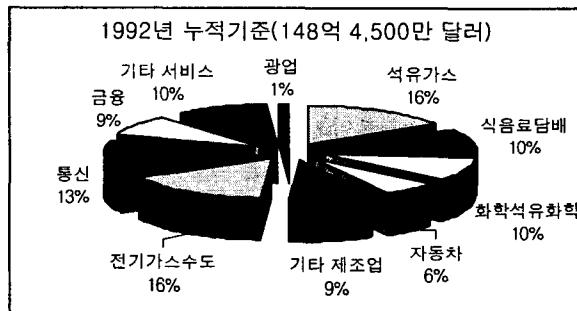
80년대에 누적기준으로 60억 달러에 불과했던 對아르헨티나 FDI는 1990~97년 사이에 3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투자추이는 90년대 아르헨티나 경제의 특징인 구조개혁정책(민영화, 규제완화, 무역 및 금융자유화 등), 경제안정화, 내수회복, 브래디플랜下의 외채재협상, MERCOSUR 출범 등의 투자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환경속에서 FDI는 두가지 단계를 거쳐 유입되고 있다. 첫째는 1990~93년 사이에 실시된 공공서비스 및 석유산업의 민영화이다. 같은 기간에 유입된 FDI의 54% 와 재정수입의 60%가 민영화 收入이었고,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프랑스, 캐나다, 영국계 기업들이 주로 신규로 통신, 에너지, 교통부문에 진출하였다. 둘째는 1994~98년 사이에 이루어진 국제적인 컨소시엄과 금융지주회사들에 의한 민간기업 M&A이다. 1995~97년 사이에 M&A를 통한 FDI가 총FDI 유입의 41%를 차지하였다.

FDI 증가 결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경제의 의존성이 높아졌는데, 다국적기업 총매출액이 1990년 34%에서 1995년에는 51%(순위 500대기업에 속하는 212개 다국적기업)로 증가하였다. 산업부문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의 역할도 상당한데, 1995년에 식음료담배부문에서는 51%, 제지펄프부문에서는 62%, 화학 및 석유화학부문에서는 82%, 고무제품부문에서는 78%, 전자부문에서는 76%를 각각 차지했다.

1) 산업별 FDI 분포

아르헨티나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1992~96년 사이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과 1차산업에 대한 FDI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농산업, 식음료담배업, 자동차산업, 그리고 화학 및 석유화학산업이 FDI의 표적이 되고 있다. 1997년의 경우에는 M&A와 자회사 진출(BBV, HSBC)에 따른 금융부문, 지방정부의 민영화에 따른 가스 및 상

<그림 5> 아르헨티나 산업부문별 FDI 분포, 1992~97년



수도부문, 그리고 통신부문 등 서비스산업에 FDI가 집중되었다. 특히 통신부문 FDI 증가는 이미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재투자, 이동전화네트워크 확장, 케이블TV 기업 소유권 이전과 통신시장으로의 통합, 유무선 TV부문 신규투자 등에 기인하여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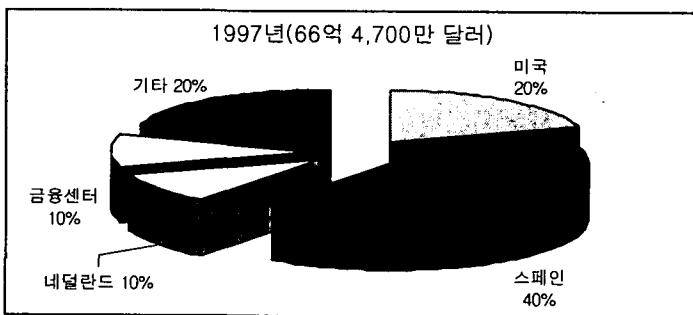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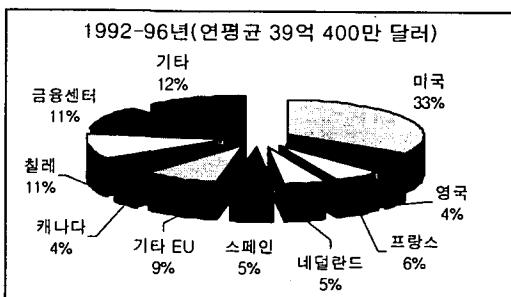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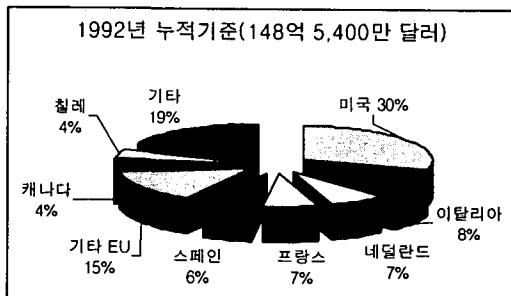
2) 투자진출 국가별 분포

1992~96년 사이에는 제조업부문에서 강세를 보인 미국이 총FDI의 33%를 차지하고, 석유산업과 금융산업 민영화를 이용한 유럽연합(29%)과 제조업, 부동산, 전기가스수도에서 강세를 보인 칠레(11%)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1997년에는 스페인계 은행(BBV) 및 기업들(Telefónica de España, Repsol, Endesa-España)의 공격적인 M&A 결과로 진출국별 투자비중이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3) 아르헨티나 진출 외국기업들의 주요 전략목표

아르헨티나에 대한 FDI 방식, 부문별·진출국별 분포를 검토한 결과 두가지 주요한 전략목표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내수시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난 MERCOSUR 역내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증가이다. 주로 금융과 통신, 그리고 식음료담배 및 자동차와 같은 특정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록 에너지 및 통신부문은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역내에서 부품산업의 수평적인 통합으로 이행하고 있다. 둘째는 오랜동안의 규제속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광업, 화석연료, 셀룰로이드 및 멜프와 같은 높은 비교우위를 가진 자원개발(수출용)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6>對아르헨티나 진출국별 FDI 분포, 1992~97년



<표 19-1> 매출액기준 아르헨티나 50대 외국기업 현황, 1997년

(단위: 백만달러, %)

기업명	부문	매출액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진출국	수출액
Telefónica de Argentina S.A.	통신	2,994	Telefónica de España/CEI	54	스페인/미	-
Exxel Grupo	잡화	2,276	Exxel Group	-	미국	-
Shell Cia. Argentina	석유	2,205	Royal Dutch Shell	100	영/네덜란드/프랑스	60
Telecom Argentina S.A.	통신	2,037	Stet-Telecom/France Tele.	45	미국	-
Ford Argentina	자동차	1,866	Ford Motor Company	100	미국	748
Esso S.A. Petrolera Argentina	석유	1,818	Exxon Corporation	100	미국	113
Carrefour Argentina	상업	1,737	Carrefour Supermache S.A.	100	프랑스	-
Fiat Gruppo	상업	1,733	Fiat SpA	100	이탈리아	-
Philip Morris Gruppo	담배	1,723	Philip Morris Companies	100	미국	-
Cagill S.A.	농산업	1,687	Cagill Inc.	100	미국	1,242
Sistema Coca-Cola	음료	1,589	Coca-Cola	-	미국	-
Massalin Particulares S.A.	담배	1,496	Philip Morris Companies	100	이탈리아	-
Fiat Auto Argentina	자동차	1,448	Fiat SpA	100	독일	530
Volkswagen Argentina	자동차	1,348	Volkswagen AG	100	프랑스	556
Ciadea	자동차	1,264	Regie Renault	51	네덜란드	162
Supermercados Discos S.A.	상업	1,147	Royal Ahold	25	미국	-
Supermercados Norte	상업	1,028	The Exxel Group	100	스페인	-
Aerolineas Argentinas S.A.	항공	998	Iberia	84	영/네덜	80
Unilever de Argentina S.A.	식품	884	Unilever	100	영국	-
Nobleza-Piccardo S.A.	담배	879	British American Tobacco	100	칠레/미국	-
Edeser	전력	869	Enersis/Chilectra/Entergy	65	프/스페인	-
Edenor	전력	848	Elect. de France/Endesa	37	칠레	-
Cencosud	상업	815	Paulmann Group	100	미국	-
General Motores	자동차	774	General Motors Corp.	100	이탈리아	106
Gamuzzi Argentina	석유/가스	720	Camuzzi Gazometri SpA	100	미국	-
Sistema Pepsi-Cola	음료	720	PepsiCo	100	프랑스	-
Sevel Argentina S.A.	자동차	661	Peugeot	50	영/스페인	160
MetroGas	가스유통	628	British Gas/Repsol	70	독일	-
Mercedes Benz Argentina S.A.	자동차	619	Daimler Benz AG	100		64

<표 19-2> 매출액기준 아르헨티나 50대 외국기업 현황, 1997년

(단위: 백만달러, %)

기업명	부문	매출액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진출국	수출액
Cervecerías y MQ.	음료	608	Heineken NV	15	네덜란드	-
La Plata Cereal	식품	601	Andre & Cie	93	스위스	-
PanAmerican Energy LLC	석유	594	Amoco Corporation	60	미국	229
IBM Argenna S.A.	컴퓨터	580	IBM Corporation	100	미국	4
Movicom CRM	통신	574	BellSouth/Motorola	90	미국	-
Bayer Argentina	화학	540	Bayer AG	100	독일	45
Astra	석유	521	Repsol SA	57	스페인	55
Telintar	통신	510	Telefónica-España/France Telecom/Stet-Telecom	-	스페인/프/ 이탈리아	-
EG3	석유	509	Repsol SA	100	스페인	-
Equitel S.A(Siemens)	전자	502	Siemens AG	100	독일	77
Louis Dreyfus	식품	472	Louis Dreyfus & Cie SA	100	프랑스	274
Nestle Argentina S.A.	식품	453	Nestle AG	100	스위스	51
Aguas Argentinas	공공서비스	420	Lyonnaissed Es Eaux/ Aguas de Barcelona/SCP	62	프랑스/ 스페인	-
Transportadora Gas del Sur	가스유통	412	Enron	50	미국	-
Compañía Continental S.A.	식품	405	Continental Grains Co.	100	미국	221
Femsa	음료	400	Femsa-Coca-Cola/ The Coca-Cola Company	100	멕시코/미국	-
Wal-Mart Stores Argentinas	상업	400	Wal-Mart Stores, Inc.	100	미국	-
Gas Natural BAN	가스유통	389	Gas Natural	70	스페인	-
Pleaginosa Oeste	식품	389	Glencore Holding	100	스위스	-
Central Costanera	전기	377	Endesa/KLT Power Inc. Entergy	63	칠레/미국	-
Hipermercados libertad	상업	376	Casino	75	프랑스	-

주: 1) 1996년 기준.

자료: ECLAC.

<표 20> 외국기업에 의한 아르헨티나 기업 M&A 사례, 1997년

(단위: 백만 달러)

M&A대상기업	지분(%)	인수기업	진출국	금액
석유/가스부문				
Brigas S.A.	-	Amoco Corp(60%)/Brigas(40%)	미국	1,430
EG3	95	Repsol S.A.	스페인	400
Pluspetrol S.A	45	Repsol S.A.	스페인	360
Mexpetrol Argentina	34	Repsol S.A.(기 33% 소유)	스페인	200
Algas S.A.	100	Repsol S.A.	스페인	70
Argon S.A.	100	Total	프랑스	130
CAPAS	40	El Paso Energy	미국	243
통신부문				2,769
Vido Cable Communi.	40	US West Media Group	미국	340
Cable Vision	67	CEI-Citicorp, Telefónica de España	미국/스페인	761
Cable Vision	20	Tele Comuns Int'l(TCI)	미국	200
Cointel S.A.	17	CEI-Citicorp	미국	590
Cointel S.A.	14	Telefónica de España	스페인	340
Canal 9	50	Prime Television Ltd.	호주	150
Imagen Satelital	-	Cisneros Group	베네수엘라	114
Torneos y Competencias	40	Telefónica de España/CEI-Citicorp	스페인/미국	80
Atlantida Group	60	Telefónica de España/CEI-Citicorp	스페인/미국	194
금융부문				2,828
Banco Rio de la Plata	35	Banco Santander		694
Roberts Inversiones S.A.	-	HSBC(은행 70%, 지주회사 100%)	스페인	668
Banco Credito Argentino	100	BBV	영국	560
Banco de Tres Arroyos	100	Lloyds Bank	스페인 영국	80
Banco Quilmes	70	Bank of Nova Scotia	캐나다	188
BUCI	100	Saiegh Group	칠레	118
Siembra Group	51	Citibank NA(100%)	미국	240
Siembra Group	-	Argentaria(Citibank에서 일부 인수)	스페인	280
상업				1,603
Oca-Ocaso	100	The Exxel Group	미국	450
Inversiones y Servicios	-	The Exxel Group	미국	155
Musimundo	100	The Exxel Group	미국	217
Disco and Sta. Isabel	25/19	Royal Ahold	네덜란드	368
Hipermercados Libertad	75	Casino	프랑스	203
Supermercado Vea	100	Velox Group	우루과이	210
제조업				543
Fargo	-	The Exxel Group	미국	200
CLADEA	70	Regie Renault	프랑스	168
Celulosa Argentina	-	Citibank	미국	76
Coca-Cola Export Corp.	25	Femsa-Coca-Cola(Femsa가 지분75% 기소유, 인수후 개명)	멕시코	99

자료: ECLAC.

4. 콜롬비아

對콜롬비아 FDI는 1990~97년 사이에 11배나 증가(표2 참조)하는 성과를 보였는데, 이는 주로 콜롬비아는 물론 안데스공동체 역내에서 나타난 투자관련 규제완화, 9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광업, 전력, 천연가스 및 석탄부문의 민영화, 그리고 중남미 역내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된 칠레, 멕시코, 베네수엘라 기업들의 국제화 및 스페인 기업들의 진출에 기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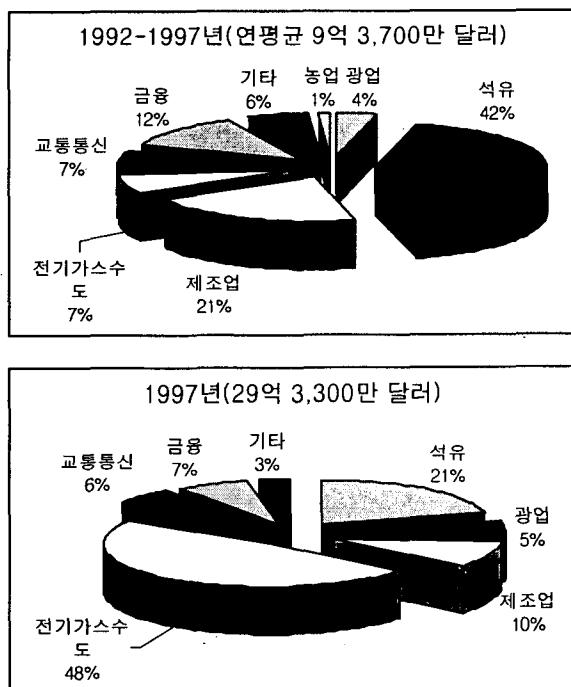
1) 산업별 FDI 분포

콜롬비아 중앙은행과企劃部 자료에 따르면, 1992~96년 사이에 유입된 FDI는 유전개발(68%)에 집중되고, 그 뒤를 상업(10%), 광업(8%), 그리고 제조업(8%)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1997년에는 이러한 산업별 분포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가스수도부문이 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석유(25%), 제조업(17%), 금융(12%), 통신(9%)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산업별 분포 변화는 경제정책 변화에 그 원인이 있는데, 80년대에는 수입대체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90년대에는 현대화와 구조조정이 실시된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 투자진출 국가별 분포

산업별 투자분포도 변화처럼 투자진출국 분포도 최근들어 변화하고 있다. 즉, 유럽과 미국기업들의 투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투자는 자본출처가 불분명한 관계로 지리적 분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997년에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투자진출은 1992~97년(연평균)보

<그림 7> 콜롬비아 산업부문별 FDI 분포(연평균), 1992~97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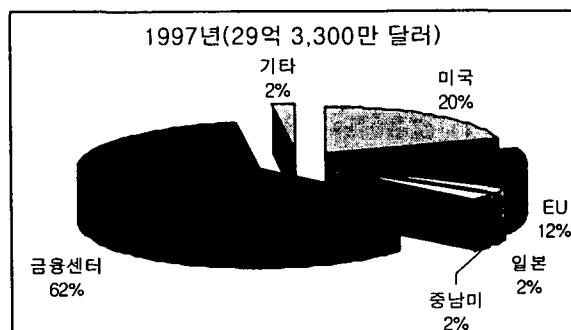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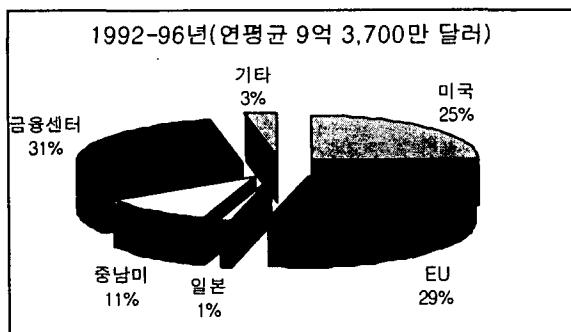
주: 1) 유전개발 FDI 제외됨. 포함할 경우 분포도가 변할 수 있음.

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케이만군도가 31.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네수엘라가 12.2%, 파나마가 9.2%,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6.2%를 각각 기록하였다.

3) 콜롬비아 진출 외국기업들의 주요 전략목표

콜롬비아에 대한 FDI 방식, 부문별·진출국별 분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업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천연자원과 그 부산물(석유, 천연가스, 석탄 개발 및 생산)의 개발, 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시장진출

<그림 8> 對콜롬비아 진출국별 FDI 분포, 1992~97년¹⁾



주: 1) 유전개발 FDI 제외됨. 포함할 경우 분포도가 변할 수 있음.

과 민영화(Promigas: 천연가스 유통, Terpel: 연료용 유류판매, Cerro Matoso: 니켈생산)를 통한 시장진출이다. 둘째는 민영화와 M&A를 통해 전기, 가스, 금융, 통신과 같은 특정 내수부문 진출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 21> 민영화 사례(5,000만 달러이상), 1997년(단위: 백만달러)

대상기업	지분(%)	인수기업	부 문	금액
Empresa de Energía de Bogotá(EEB)/Comercializadora Distribuidora de Energía de Bogotá(Codensa)	48.5	Endesa-España/ Eneresis/ Endesa-Chile, 기타	전기	
EEB/Generadora de Energía Eléctrica de Bogotá(Emgesa)	48.5	Endesa-España/ Endesa-Chile	전기	1,230 952
Central Hidroeléctrica de Chivor	99.0	Gener(칠레)	전기	644 535 302
Empresa de Energía del Pacífico S.A.(EPSA)	56.7	Houston Energy Industries(미국)/ Electricidad de Caracas(베네수엘라)	전기	179 160
Central Hidroeléctrica de Betania S.A.(CHB)	99.9	Endesa-Chile/ Corporación Financiera del Valle	전기	
Cerro Matoso Gas Natural	47.0 50.3	Gencor(남아공, 총 99% 소유) Repsol and Iberdrola(스페인)	나ヶ 에너지	
합 계				4,002

자료: ECL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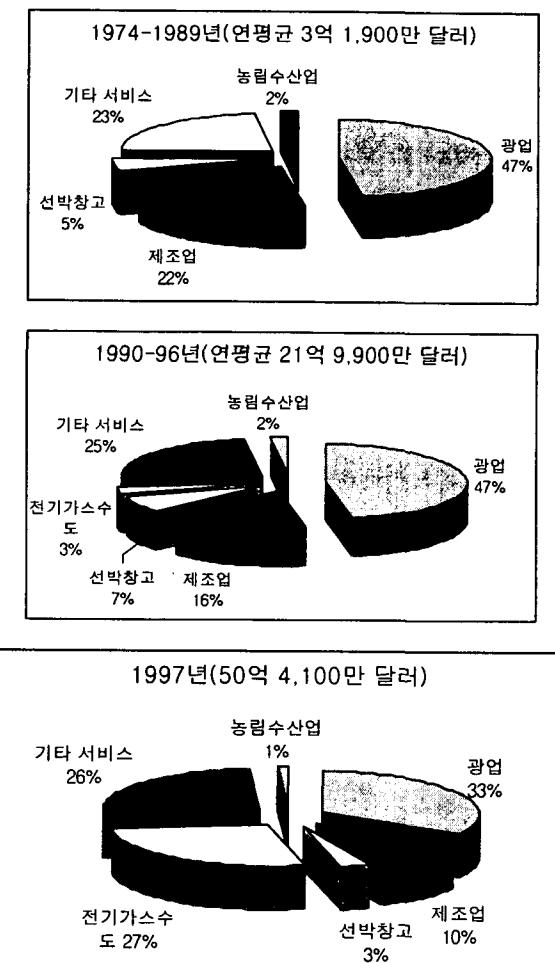
5. 칠레

對칠레 FDI는 1980년대 연평균 5억 3,000만 달러에서 1991~95년 사이 연평균 17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1996~97년에는 평균 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에는 중남미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속되어온 高성장 경제라는 특징이 반영되었지만, 특히 투자법(DL600)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 80년대에는 1985년부터 실시된 채무주식화프로그램과 후반의 민영화가 외국인투자의 기초가 되었고, 90년대에는 M&A가 주요 투자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1) 산업별 FDI 분포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CIE) 자료에 따르면, 1974~96년 사이에는 광업(銅 및 金)에 대한 투자가 50%를 차지한 가운데 제조업 투자비중은

<그림 9> 산업부문별 FDI 분포(연평균), 1992~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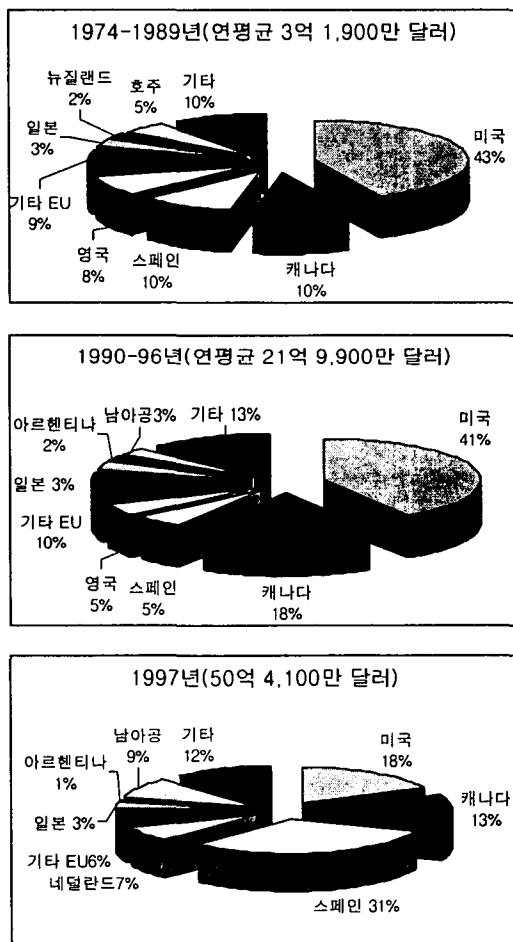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부문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對칠레 투자부문이 주로 광업이었던 관계로 FDI는 M&A방식보다 신규투자 프로젝트 진출을 선호했지만, 1996년과 1997년에는 전기, 통신, 금융과 같은 서비스부문이 투자대상으로 부상하면서 M&A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투자진출 국가별 분포

투자진출국 분포를 살펴보면 1974~96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기업(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지 및 펄프산업, 농산업, 시멘트산업에서 우위를 점하였으며, 유럽(특히 스페인)이 서비스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진출국 분포도는 투자부문이 변화는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는데, 1997년의 경우 전력부문(Endesa-España에 의한 Enersis 지분 29% 인수)에 대한 투자를 집중한 스페인이 미국을 제치고 제1위의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캐나다가 3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최대 투자진출지역이 된다.

3) 칠레 진출 외국기업들의 주요 전략목표

對칠레 FDI 방식, 부문별·진출국별 분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업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수출을 위한 천연자원(동, 금, 펄프, 어분, 메탄올, 포도, 목재) 개발과 관련한 투자이다. 광업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기업(Minera Escondida, El Abra, Candelaria, Compañía Minera Disputada de las Condes, Mantos Blancos)에서는 대지주로 참여하고, 제지 및 펄프와 같이 천연자원을 이용한 제조업체(Forestal Santa Fe, Compañía de petróleos de Chile)에서는 소수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내수 및 중남미 역내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서비스 및 특정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의 전략적 동반자 혹은 협작으로 진출하고

<그림 10> 對칠레 진출국별 FDI 분포, 1992~97년¹⁾

하고 있다. 소수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부문(Compañía de Teléfonos de Chile, Empresa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에는 채무주식화와 민영화를 통해 진출하고, 제조업 부문에는 주로 채무주식화 혹은 1982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기업(Industria Azucarera

Nacional, Compañía Cervecerías Unidas)에 국내기업과 합작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이나 지역수준에서 모기업과의 통합을 강화하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Nestle, Unilever, General Motors) 진출이 활발하다. 최근에는 M&A를 통한 외국기업(Enersis, Embotilladora Andina, Supermercados Santa Isabel) 진출 또한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2> 매출액기준 칠레 30대 외국기업 현황, 1997년

(단위: 백만달러, %)

기업명	부문	매출액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진출국	수출액
Crédito Petróleo de Chile	상업	3,048	Carter Holt Harvey	27	-	-
Enersis	에너지	2,815	Endesa-España	29	뉴질랜드 스페인	-
Escondida Ltda.	광업	1,547	BHP/RTZ/JECO	100	호주, 영, 일	1,547
Telecomunicaciones de Chile	통신	1,437	Telefónica de España S.A.	44	스페인	-
Shell-Chile	상업	1,064	Royal Dutch Shell	100	영/네덜란	2
Embotilladora Andina	식품	890	Coca-Cola Corp.	11	미국	0
Supermercados Santa Isabel	상업	755	Grupo V7ox(21%)/ Royal Ahold(16%)	37	우루과이/네	0
Esso-Chile	상업	700	Exxon Corporation	100	일란드	1
Nestle-Chile S.A	식품	644	Nestle AG	100	미국	39
Gener Energy	전력	614	Continental Bank Security Pacific	16	스위스 미국	0
Cia. Cervecerías Unidas	음료	588	Paulaner	32	독일	3
General Motors	자동차	525	General Motors Corp.	100	미국	101
Minera El Abra	광업	434	Cyprus Amax	51	미국	447
Disputadas de Las Condes	광업	403	Exxon Corporation	100	미국	278
Empresa Nacional de Telecom.	통신	378	Stet Telecom, Samsung	30	이탈리아/ 한국	272
Cia Minera Candelaria	광업	327	Phelps Dodge, Sumitomo	100	미국/일본	327
Methanex Chile C. Ltda.	화학	300	Methanex Corp.	100	캐나다	285
Soprole	식품	295	Dairy Board	51	뉴질랜드	2
Mantos Blancos	광업	276	Mininco	75	룩셈부르크	276
Malloa Food	식품	220	Unilever	100	영/네덜란	23
Minera Zaldívar	광업	217	Placer Dome(50%)/ Outukumpu(50%)	100	캐나다/핀란드	217
Goodyear de Chile Saic	타이어	215	The Goodyear Tyre & Rubber Co.	100	미국	57
Chile Tabacos	담배	180	British American Tobacco	70	영국	30
Forestal Santa Fe	제지/퍼트	174	Royal Dutch Shell	100	영/네덜란드	0
Cemento Mel?	시멘트	170	Blue Circle Ind.PLC	98	영국	0
CATECU	신발	156	Bata S.A.C.	100	캐나다	2
Cemento Polpaico	시멘트	150	Holderbank Financière	54	스위스	0
Quebrada Blanca S.A.	광업	149	Gians Ltd.	80	캐나다	149
Mantos de Oro	광업	133	Cominco, Teck Corp.	100	캐나다	133
El Indio	광업	120	Placer Dome	100	캐나다	88

자료: ECLAC.

6. 베네수엘라

90년대 들어 중반까지對 베네수엘라 FDI는 거시경제적 불균형 및 금융 시장 불안정으로 그 규모가 적었으나, 1996년 발표된 “안정화 및 구조조정 정책(Agenda Venezolana)” 이후 실시된 민영화와 석유산업 개방을 이용하여 급증하였다. 1990~96년 사이에 연평균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FDI는 1997년에 50억 8,7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1) 산업별 FDI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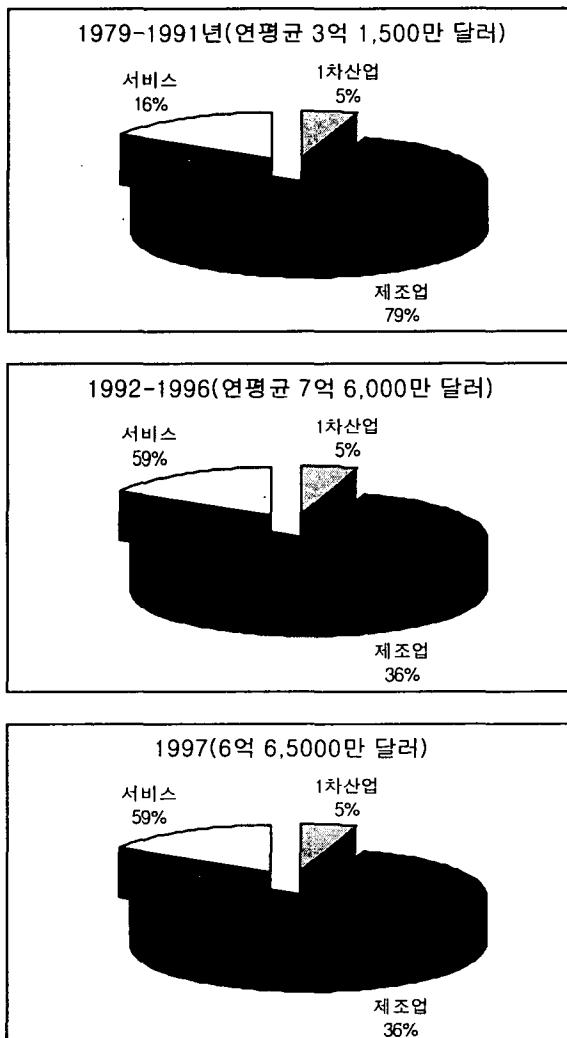
외국인투자감독청(SIEX) 자료에 따르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 까지 유입된 FDI는 석유산업과 같은 주요 부문들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주로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91년부터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투자부문이 통신(CANTV), 항공(VIASA) 등으로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국영석유회사(PDVSA)에 의하여 발표된 “10개년 투자계획”에 따라 외자를 조달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석유산업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同一부문에 대한 FDI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경제위기 속에 금융부문이 취약해지면서 국영화된 은행들이 민영화되거나 직접 M&A의 대상이 되었다. 1997년에는 안정화정책과 민영화(철강 및 석유산업) 재개에 자극받아 FDI 유입이 급증했다.

2) 투자진출 국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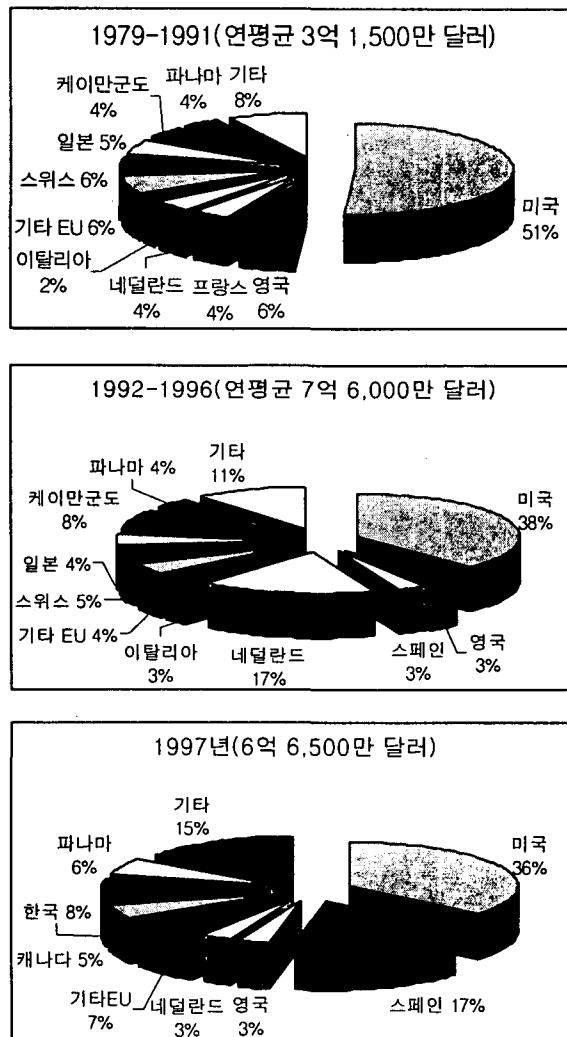
베네수엘라에 대한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서 주로 제조업, 금융, 통신부문 순으로 투자하고 있고, 최근에는 석유산업에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 유럽국가들이 금융부문과 특정 제조업종에 진출하고, 일본기업이 금속제조업(알루미늄)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남미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11> 베네수엘라 산업부문별 FDI 분포(연평균), 1979~97년¹⁾



주: 1) 석유산업 FDI 제외.

<그림 12> 對베네수엘라 진출국별 FDI 분포, 1979~97년¹⁾



주: 1) 석유산업 FDI 제외.

3) 베네수엘라 진출 외국기업들의 주요 전략목표

對베네수엘라 FDI 진출방식, 부문별·진출국별 분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외국기업들의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풍부한 천연 자원의 이용성과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석유, 천연가스, 금속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는 통신, 금융 및 석유산업 관련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시장 진출(특히 콜롬비아)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경우(자동차산업)도 있다.

<표 23> 매출액기준 베네수엘라 20대 외국기업 현황, 1997년

(단위: 백만달러, %)

기업명	부문	매출액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진출국	수출액
CANTV	통신	2,148	GTE Corp.	20	미국	-
Ford Motors de Venezuela	자동차	704	Ford Motor Company	100	미국	157
Vencemos	시멘트	462	Cemex S.A.	100	멕시코	-
Cigarrera Bigott Sucesores	담배	410	BritishAmerican Tobacco	100	영국	-
General Motoars de Venezuela1)	자동차	393	General Motor Corp.	100	미국	79
Molinos Nacionales CA	식품	289	Multifoods Ins.	98	미국	-
Toyota	자동차	230	Toyota Motor Corp.	100	일본	-
Proago	식품	209	Grupo Mendoza	-	멕시코	-
Parmalat	식품	190	Parmalat	100	미탈리아	-
Fiat Automóbiles Venezuela	자동차	183	Fiat Auto SpA.	100	이탈리아	-
Plumrose1)	식품	170	The East Asiatic Co.	100	독/싱가폴	-
Smurfit Carton de Venezuela	제지/멸프	148	Smurfit Carton	100	아일랜드	-
Siemens Niexdorf CA1)	전자	130	Siemens AG	100	독일	-
Nacional de Cementos	시멘트	106	-	-	-	-
Bayer	화학	98	Bayer Ag	100	독일	10
Nestle Venezuela S.A.1)	식품	97	Nestle Ag	100	스위스	-
Madosa	전기제품	93	General Electric	-	미국	-
Tabacalera Nacional	담배	87	BritishAmerican Tobacco	-	영국	-
Cerveceria Nacional1)	음료	40	-	-	-	-
Hoesch de Venezuela1)	화학	29	Hoesch AG	100	독일	-

주: 1) 1996년기준.

자료: ECLAC.

<표 24> 외국기업 참여 M&A 사례(5,000만 달러이상), 1997년기준

(단위: 백만달러)

M&A대상기업	지분(%)	인수기업	진출국	금액
제조업				
HIT de Venezuela	50	Panamco	멕시코/파나마	1,060
Brasme-Venezuela Timber	-	Sterling Worldwide Corp.	미국	40
Yukery	100	Novartis	스위스	20
금융				428
Banco Provincial	40	BBV	스페인	370
Banco Mercantil	10	J.P. Morgan	미국	30
Seguros La Seguridad	-	Grupo Mapfre	스페인	28
통신				150
Comunicaciones Telefónicas	-	Argenta Finance	비진아일랜드	150
Cellular Trading 3	100	Brightpoint	미국	-
광업				-
Fesilven	70	Autel	멕시코	-
기타 서비스				-
P&T Servicios Petroleros CA	-	NQL Drilling Tools Inc.	캐나다	8
AJL Publicidad	-	Foote, Cone & Belding	미국	-

자료: ECL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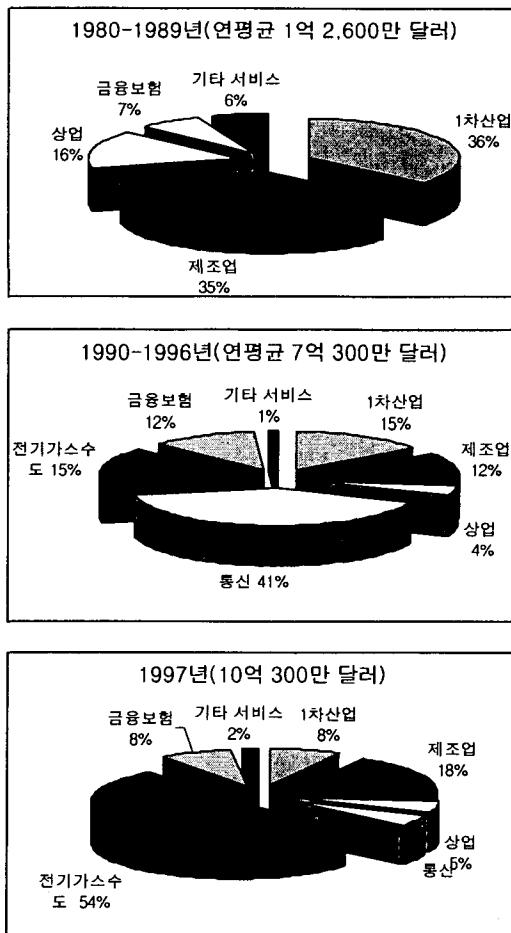
7. 페루

80년대 연평균 3,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對페루 FDI는 1991~95년에 연평균 11억 달러, 1994년~97년에는 2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투자증가세는 페루가 중남미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안정화와 구조조정정책 시행으로 투자부문이 대폭 개방된 결과였다. 특히 150여개 공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84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였고, 이들 민영화된 기업들의 확장과 현대화 과정에서 70억 달러를 추자로 유치할 수 있었다. 한편, 1997년에는 민영화 완료, 자연재해(엘니뇨) 및 아시아위기 영향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으로 페루에 대한 FDI는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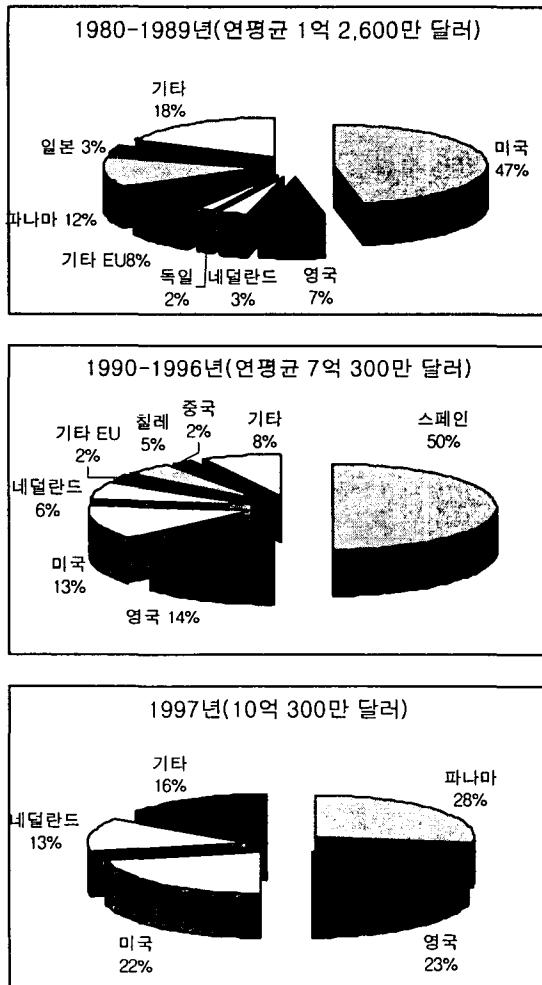
1) 산업별 FDI 분포

페루 외국인투자기술위원회(CONITE) 자료에 따르면, 80년대 FDI는 주로 수입대체화산업정책을 이용한 제조업과 광업부문에 집중되었으나,

<그림 13> 페루 산업부문별 FDI 분포(연평균), 1980~97년



<그림 14> 對페루 진출국별 FDI 분포, 1980~97년



90년대에는 민영화 과정에서 개방된 서비스부문(통신, 전력, 금융)에 유입되고 있다.

2) 투자진출 국가별 분포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최대 진출국이었으나 90년대에는 스페인이 최대 진출국으로 부상했다. 1991~97년 사이 유입된 총FDI 가운데 스페인의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투자비중은 전화와 통신회사의 인수로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부여할 수 없다. 이외에 영국, 네덜란드, 칠레, 중국이 새로운 진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표 25> 매출액기준 페루 20대 외국기업 현황, 1997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

기업명	부문	매출액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진출국	수출액
Telefónica de Perú	통신	1,426	Telefónica de España S.A.	35	스페인	0
Southern Peru Copper Corp.	광업	825	Southern Peru Copper Corp.	100	미국	788
Alicorp.	식품	560	Birmingham Merchant S.A.	10	영국	-
Edelnor	전력	304	Enersis(33%)/ Endesa-España(18%)	60	칠레/스페인	0
Luz del Sur S.A.	전력	300	Chilquinta(36%)/ Hydro Ontario(24%)	60	칠레/캐나다	0
Edegel	전력	-	Entergy Corp./Endesa	60	미국/칠레	0
Empresa de Generación- Eléctrica Nor	전력	-	Dominion Energy	60	미국	0
Minera Yanacocha	광업	249	newmont Mining	51	미국	-
Nestle Perú	식품	240	Nestle AG	100	스위스	-
Minera Cerro Verde	광업	220	Cyprus Minerals	100	미국	220
Occidental Petroleum Co. of - Peru	석유/가스	-	Occidental Corp.	100	미국	-
Minera Tintaya	광업	210	BHP	100	호주	220
Procter & Gamble de Perú	위생용품	169	Procter & Gamble	100	미국	-
Cargill de Perú S.A.	식품	155	Cargill Incorporated	100	미국	-
shougang-Hierro Perú	광업	150	Shougang Corp.	100	중국	150
IBM del Perú	컴퓨터	-	IBM Corporation	100	미국	-
Cia Oleaginosa del Perú	식품	107	Bunge & Born	-	아르헨티나	-
Toyota del Perú	자동차	-	Toyota Motor Corp./Mitsui	90	일본	-
Tele 2000	통신	75	BellSouth	59	미국	0
Goodyear del Perú	타이어	75	Goodyear Tyre & Rubber Co.	100	미국	-

자료: ECLAC.

3) 페루 진출 외국기업들의 주요 전략목표

對페루 FDI 진출방식, 부문별·진출국별 분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외국기업들의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수출목적의 천연자원(특히 광업) 개발투자와 내수 및 역내시장을 목표로 한 석유산업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는 국내시장에서 높은 수익률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는 통신, 전력, 금융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표 26> 외국기업 참여 민영화 및 M&A 사례, 1997년기준

(단위: 백만달러)

M&A대상기업	지분(%)	인수기업	진출국	금액
에너지				335
Edegel	60	Entergy Corp./Endesa	미국/칠레	235
Empresa Eléctrica Piura	-	Endesa-España	스페인	59
제조업				227
Industrias Pacocha S.A.	50	Unilever4	영국	72
D'Onofri? S.A.	99	Nestle S.A.	스위스	71
Paramonga	-	Lehman Brothers Holding	미국	25
Alicorp	-	Bimbo	멕시코	16
Molino Italy	99	Empresas Carrozzi S.A.	칠레	16
Pavco del Perú S.A.	-	Amindus Holding AG	스위스	11
기타 1,000만 달러 이하				16
광업				156
La Oroya	100	Doe Run Co.	미국	121
Minera Cerro Corona	100	Arequipa Resources	캐나다	30
Minera Quellaveco	100	Minera Mantos Blancos	남아공	5
통신				110
Tele 2000	59	BellSouth	미국	110
서비스				110
Santander Perú Holding	100	Banco Santander	스페인	25
Supermercados Scala	100	Santa Isabel	칠레	21
Banco Sudamericano	25	Bank of Nova Scotia	캐나다	17
Mobil Oil del Perú S.A.	100	Mobil Oil Inc.	미국	15
기타 1,000만 달러 이하				32

자료: ECLAC.

IV. 한국기업의 對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1. 연도별 추이

한국기업의 對중남미 직접투자는 1980년대 전반까지는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된 경기침체와 국내기업들의 투자진출 여건 미비 등으로 인해 매우 미진한 상태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중남미 국가들이 과감한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획득한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적 성과, 역내교역의 자유화 등에 따른 역내투자 환경 호전, 중남미 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추진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기업의 對중남미 직접투자(총투자기준)는 1981~90년 연평균 10.5건, 1,493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표 27> 한국기업의 對중남미 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천달러)

	신고				투자			
	총신고		순신고		총투자		순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68~80	25	29,306	12	4,841	20	4,878	11	4,411
1981	5	708	3	248	3	978	2	568
1982	3	1,070	3	1,065	5	1,061	5	1,061
1983	7	516	7	516	5	312	5	312
1984	5	14,560	2	11,880	3	739	3	739
1985	2	1,300	1	1,241	3	2,858	2	2,799
1986	8	3,325	6	3,250	3	2,720	1	2,645
1987	17	6,331	14	5,332	14	4,226	12	3,677
1988	22	21,557	18	21,131	15	14,209	13	14,016
1989	35	76,460	30	74,627	28	55,428	25	55,347
1990	40	85,918	38	79,548	26	66,812	25	66,455
1991	39	43,852	35	38,423	36	41,595	34	39,759
1992	31	69,958	19	45,779	28	36,504	27	30,025
1993	33	47,231	25	11,022	29	43,757	25	26,518
1994	40	96,208	23	52,142	36	49,148	30	20,206
1995	42	246,179	24	136,742	28	119,557	15	64,970
1996	49	421,578	45	357,361	39	256,181	37	232,594
1997	48	627,805	41	614,377	32	257,825	25	244,397
1998	19	378,667	14	337,325	16	205,186	11	195,944
1999. 1~11	16	70,919	-	-	11	56,197	-	-
계	470	2,172,530	360	1,797,030	369	1,220,173	308	1,006,443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1999.

1991~98년에는 연평균 30.5건, 1억 2,622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우리나라 총ODI에서 對중남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81~90년 3.4%에서 1991~98년 4.45%로 증가하였다.

2. 투자대상국별 투자현황

한국기업의 對중남미 직접투자 대상국을 보면, 1998말 현재 잔존기준(순투자)으로 멕시코가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국으로써 對중남미 투자의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브라질(15.0%), 아르헨티나(9.3%), 폐루(8.8%), 베네수엘라(4.5%) 등의 순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카리브 연안의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투자도 두드러지는데, 버진아일랜드가 對중남미 투자의 9.8%를, 파나마가 9.1%를, 케이만군도가 7.8%를, 버뮤다가 1.7%를 점하고 있다.

對멕시코 투자는 1990년 이전까지는 약 12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NAFTA 협정 발표에 즈음한 1990년대 전반, 가전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4년말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자제되어 왔으나, 최근 멕시코가 NAFTA에 따른 거품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국내업계의 관심도 전기·전자와 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회복기를 맞고 있다.

對브라질 직접투자는 브라질의 시장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편이나 최근 브라질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對아르헨티나 직접투자는 비교적 투자가 활발한 편이지만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對폐루 및 칠레 직접투자는 자원개발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표 28> 한국의 對중남미 국가별 투자(순투자기준) 현황
(단위: 천달러, 괄호안은 건수)

	1995	1996	1997	1998	1998년말 잔존
케이만군도	8,338(1)	22,410(1)	41,637(0)	5,671(1)	78,557(5)
파나마	2,023(-5)	6,600(1)	3,045(-1)	14,584(-1)	91,169(42)
멕시코	40,152(5)	37,667(9)	32,681(3)	46,930(4)	182,951(37)
아르헨티나	5,491(0)	7,605(2)	2,926(1)	37,403(1)	93,958(34)
칠레	-13,448(3)	14,747(-1)	2,915(2)	8,800(0)	22,955(17)
파테밀라	-2,461(-1)	1,717(2)	5,980(3)	22(3)	28,529(38)
온두라스	-4,51(2)	2,456(1)	4,223(2)	210(0)	28,093(29)
버진아일랜드	2,600(1)	40,605(2)	36,500(3)	14,098(0)	98,633(10)
브라질	19,158(4)	50,137(5)	47,051(3)	34,677(2)	151,701(20)
베네수엘라	300(1)	7,901(2)	36,719(0)	0(0)	45,420(4)
코스타리카	1,822(0)	2,530(0)	821(2)	0(0)	14,571(11)
자메이카	380(0)	843(0)	-1,600(-1)	0(0)	8,423(7)
엘살바도르	820(0)	2,107(1)	15(1)	1,617(0)	11,169(9)
나카라파	1,000(1)	1,000(0)	0(0)	0(0)	4,300(2)
콜롬비아	-490(0)	2,750(2)	79(1)	0(0)	6,476(7)
도미니카	3,000(1)	0(0)	0(0)	0(0)	3,641(3)
가이아나	0(0)	0(0)	0(0)	0(0)	3,600(1)
볼리비아	188(1)	105(1)	2,620(1)	15,444(1)	19,979(7)
에콰도르	609(0)	163(0)	0(0)	0(0)	1,106(3)
파라과이	0(0)	0(0)	0(0)	0(0)	1,732(2)
버뮤다	5(1)	60(1)	10,919(2)	4,004(0)	16,638(6)
페루	0(0)	54,124(2)	17,466(1)	16,960(1)	88,550(7)
세인트빈센트	0(0)	0(0)	0(0)	0(0)	870(1)
바베이도스	436(1)	0(0)	0(0)	0(0)	436(1)
세인트루시아	0(0)	0(0)	0(0)	0(0)	500(2)
벨리즈	0	0	0	0	0
우루과이	-400(-1)	85(1)	-2(-1)	0(0)	85(1)
비하마	0(0)	5,975(2)	400(0)	-4,475(-1)	1,900(1)
푸에리토리코	0(0)	500(1)	0	0	500(1)
소계	64,970(15)	232,594(37)	244,397(25)	195,944(11)	1,006,443(308)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1999.

3. 업종별 투자현황

한국기업의 對중남미 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투자금액 기준으로 제조업이 총투자의 59.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광업 13.2%, 무역업 8.3%, 수산업 8.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역시 제조업이 154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업이 53건, 무역업이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 한국기업의 對중남미 업종별 투자 현황(1998년 말 잔존 순투자 기준)

(단위:천달러, 팔호안은 건수)

	광업	임업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보관업	무역업	기타	계
투자	134,591 (9)	13,600 (3)	47,189 (53)	510,691 (172)	3,657 (9)	7,395 (9)	137,552 (39)	151,768 (17)	1,006,443 (308)
비중	13.4	1.3	4.7	50.7	0.4	0.7	13.7	15.1	100

자료: 전국은행연합회,『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1999.

제조업에서는 멕시코,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비제조업에서는 아르헨티나, 파나마 등에 대한 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봉제 및 의류, 잡제품 등 노동집약적 가공업종 일변도에서 최근 전자 및 자동차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비제조업에서는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하는 수산업에 대한 투자와 남미지역에 대한 무역업 투자가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對아르헨티나 직접투자의 경우 총 32건중 24건이 수산업에 대한 투자이다.

<표 30> 국별·업종별 투자현황(1998년말 잔존 순투자기준)

(단위: 천달러, 괄호안은 건수)

	업종별			기타업종포함 순투자
	제조업	무역업	수산업	
<中美지역>				
파나마	43,177(13)	24,250(5)	15,599(14)	91,169(42)
멕시코	99,750(28)	33,284(4)	405(2)	182,951(37)
과테말라	28,529(38)	-	-	28,529(38)
온두라스	26,975(25)	518(1)	300(2)	28,093(29)
코스타리카	11,572(8)	0(1)	-	14,571(11)
엘살바도르	11,169(9)	-	-	11,169(9)
자메이카	8,423(7)	-	-	8,423(7)
도미니카	3,641(3)	-	-	3,641(3)
니카라과	2,300(1)	-	-	4,300(2)
버뮤다	650(1)	-	-	16,638(6)
<南美지역>				
아르헨티나	145(2)	38,600(2)	24,902(25)	93,958(34)
브라질	145,392(10)	2,977(6)	-	161,701(20)
칠레	6,142(8)	12,613(3)	4,101(5)	22,955(17)
볼리비아	923(2)	3,379(3)	-	19,979(7)
콜롬비아	2,853(3)	3,544(3)	-	6,476(7)
에콰도르	649(1)	457(2)	-	1,106(3)
페루	5,640(1)	6,030(3)	128(1)	88,550(7)
베네수엘라	41,920(1)	3,500(3)	-	45,420(4)
기타 국가포함 中南美 합계	510,691(172)	137,552(39)	47,189(53)	1,006,443(308)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1999.

<표 31> 對중남미 제조업투자 분포(1998년말 잔존 순투자기준)

(단위: 천달러, 괄호안은 건수)

	음식료품	섬유·의복	신발·가죽	목재·가구	종이·인쇄	식유·화학	비금속·광물	1차 금속	조립 금속	기계장비	기타 제조	계
투자액	22,020 (5)	146,730 (105)	3,377 (8)	4,903 (3)	297 (1)	46,709 (7)	834 (1)	71,040 (7)	207,172 (20)	200 (1)	7,410 (14)	510,691 (171)
비중	4.3	28.7	0.7	1.0	0.06	9.1	0.2	13.9	40.6	0.04	1.4	100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1999.

4. 우리기업들의 투자동기

우리기업들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 동기는 ▶현지 내수시장 확보와 ▶인근시장으로의 진출 용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아시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중요한 투자 동기로 지적되고 있는 낮은 임금 및 풍부한 노동력 등은 중남미 시장에서는 그 중요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투자대상 국가별 진출 동기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경우 현지 내수시장 확보가 가장 중요한 투자동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인근시장으로의 진출 용이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투자동기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 현지 내수시장 확보와 인근 시장으로의 진출 용이가 비슷한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동기로 나타난다. 즉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시장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근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용이가 중요한 투자동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낮은 임금, 풍부한 노동력, 선진국의 관세·비관세 특혜가 상당히 중요한 동기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파나마의 경우 인근시장으로의 진출 용이가,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자원개발과 현지 내수시장 확보가 중요한 투자동기로 나타났다.

또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시장에 33% 정도를 판매하고 67% 정도는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시장 중에서는 인근 중남미 시장으로의 수출이 22.3%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로의 역수출이 12.2%, 미국시장 9.4%, 유럽시장 4.2%, 일본시장 3.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비율이 아시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시장을 내수시장 및 인근 시장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로의 역수출 비중이 낮은 것은 지리적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원가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V. 중남미지역 FDI의 특징과 시사점

1. FDI 진출방식 다양화

비록 중남미지역 국가마다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외국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유도하는 주요 수단이 90년대 중반의 제조업부문 민영화에서 최근 민간기업 M&A, 서비스부문 및 자원개발부문 민영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의 민영화를 통한 FDI 진출은 경제적으로 대국에 속하면서 최근에야 민영화정책을 실시하거나, 1차로 제조업부문을 민영화한 이후 기간산업을 국가독점산업으로 유지하던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前者에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칠레가 속하고, 後者에는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투자진출 다양화와 함께 외국기업들의 투자방식도 변화고 있는데, 전통적인 단독투자보다는 위험분산 차원에서 외국 혹은 국내기업들과의 합작투자가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역내시장이 개방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역내기업들과 경제상황 호전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진입을 추구하는 외국기업들의 이익이 부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NAFTA가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려는 측면에서는 멕시코가, MERCOSUR 域內에서 통합된 생산체계를 구축하려는 측면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주요 투자대상국이 된다. 또한 이러한 투자방식이 비록 유치국의 생산능력을 제고시키지는 않지만 국가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제고시키기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하는 유치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2. 중남미 역내기업 투자진출 확대

중남미 역내무역 확대 및 다각화와 함께 역내 국가간 투자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역내 국가간 투자는 초기단계에 있지만 무역자유화와 지역통합 구도가 심화될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

남미의 주요 기업들이 유행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3. 제조업 진출기업 구조조정 필요성: 물류거점화

중남미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신규진출을 유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다국적기업들의 경영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사업을 철수하여 수출을 통해 역내시장을 보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조업부문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세계적인 통합생산체계를 통한 효율성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멕시코의 자동차, 자동차부품, 정보기술, 전자, 의류산업에서 가장 일반적이다. 자동차산업을 예를들면, 본국 내수시장에서 아시아산 자동차들의 진출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지자 미국의 주요 자동차업체들(General Motors, Ford, Chrysler, Daimler Benz)에 인수되기 이전의 경우임)과 다른 기업들(Volkswagen, Nissan)이 기존의 기술과 장비를 바탕으로 멕시코에 신규설비를 마련하여 생산효율성 개선에 노력했다. 또한 NAFTA와 마킬라도라 특혜를 이용한 미국과 아시아 기업들이 북미시장 진출을 겨냥하여 멕시코에 소비용 전자산업(TV, 컴퓨터, 음향기기, 통신장비)과 의류산업 생산설비를 마련했다. 멕시코에서와 같은 사례는 카리브 인접 국가(코스티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에 대한 미국계 기업들의 합작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기업들은 이들 국가들이 제공하는 수출가공지대(maquila) 특혜, 저임금, 그리고 미국의 관세특혜를 이용하여 아시아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의류 및 전기·전자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4. 제조업부문 내수 및 역내시장 확대 모색: 생산기지화

진출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국 시장 및 역내시장

을 보호,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설비를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시키거나 현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MERCOSUR의 역내시장 확대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同 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내수 및 역내시장용으로 개발된 제품을 위하여 수입품에 대항한 시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다. MERCOSUR 자동차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Volkswagen, Ford, General Motors가 시장점유를 유지 목과 소비증가 대처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이 지역 틈새시장을 공략할 목적으로 Chrysler, Renault, Peugeot, BMW, Mercedes Benz, Honda, Asia Motors, Hyundai가 신규진입을 모색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이외에도 중남미 지역에 이미 진출하고 있는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역내시장에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 확대하기 위한 상이한 전략들을 채택하고 있는데, 식음료담배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를 그 기반으로 삼고 있다.

5. 원자재 확보용 투자 확대

중남미 각국에서 규제완화와 함께 민간부문과 외국기업에게 진출이 제한되었던 기간산업들이 개방·민영화되면서 원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가공을 최초로 개방한 국가는 칠레인데, 90년대 들어서는 아르헨티나, 브리비아, 폐루 등이 同 부문의 개방을 적극 추진중이다. 특히 최근의 특징적인 변화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폐루, 브리비아처럼 석유 및 천연가스부문까지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 서비스부문 내수시장 선점용 투자 증대

금융, 전력, 통신 등 서비스부문이 대거 개방되면서, 특히 신규 진출자를 중심으로 시장확보를 위한 對중남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부문

에서는 스페인계 은행들(Santander, BBV, BCH)이 공격적인 M&A와 은행 민영화를 이용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에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 은행 외에도 HSBC, Nova Scotia도 중남미 금융시장에서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전력산업에도 칠레기업(Enersis, Endesa, Gener), 스페인기업(Endesa, Iberdrola), 미국기업(AES Corp., Houston Industries Energy Inc., CEA, Dominium Energy, CMS Energy)들이 브라질을 위시한 중남미지역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同 부문 투자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관계로 다양한 외국업체들과 국내기업들간의 컨소시엄 형성을 특징으로 한다.

참고문헌

- 재정경제부, 『해외직접투자 동향』, 1999. 10.
- 전국은행연합회,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1999.
- América Economía, *500 Mayores Empresas de América Latina, Santiago*, 1997.
- CEPAL, *Foreign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forme 1997*, 1998.
- , *Los Indicadores Sociales Básicos de la Subregión Norte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1998-1999*, 1999.
- IDB, *Informe Anual 1997*, Washington D.C., 1998.
- IDB/IRELA,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Perspectives of the Majors Investors*, Madrid: Rumagraf, S.A., 1998.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 1998*.
-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8*.